

# KERI 경제동향과 전망

2021년 4분기

한국경제연구원

집 필 진

이 승 석 부 연 구 위 원

감 수

조 경 엽 경제연구실 실장

## 〈 차례 〉

요 약 .....	v
제I장 최근 경제동향 .....	1
1. 경제성장 .....	3
2. 수출입(통관기준) 및 경상수지 .....	10
3. 고용 .....	15
4. 물가 .....	17
5. 금리와 환율 .....	22
제II장 국내 경제전망 .....	25
1. 대외 여건 .....	27
2. 2022년 국내 경제전망 .....	30

〈 표 차례 〉

〈표 I-1〉 주요 산업활동 지표 .....	9
〈표 II-2〉 세계 석유 수급 전망.....	29
〈표 II-3〉 해외 주요기관 유가(기준유가) 전망 .....	29
〈표 II-4〉 전망의 주요 전제 .....	29
〈표 II-5〉 2021~2022 국내경제전망.....	45

## 〈그림 차례〉

〈그림 I-1〉 실질GDP 증가율 추이	3
〈그림 I-2〉 주요 최종수요 항목별 증가율 추이	4
〈그림 I-3〉 부문별 GDP 성장 기여도	6
〈그림 I-4〉 산업생산	8
〈그림 I-5〉 경기종합지수	9
〈그림 I-6〉 수출증가율 및 일평균 수출액	10
〈그림 I-7〉 수입증가율 및 일평균 수입액	10
〈그림 I-8〉 통관기준 무역수지-수출-수입	11
〈그림 I-9〉 주요 지역별 수출증가율	12
〈그림 I-10〉 주요 품목별 수출증가율	13
〈그림 I-11〉 경상수지 항목별 증감	14
〈그림 I-12〉 서비스수지 항목별 증감	14
〈그림 I-13〉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취업자증가율	16
〈그림 I-14〉 고용률	16
〈그림 I-15〉 산업별 취업자 증감(2020.11 →2021.11)	17
〈그림 I-16〉 주요 물가지수 증가율 추이	18
〈그림 I-17〉 품목성질별 증가율	19
〈그림 I-18〉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증가율	20
〈그림 I-19〉 서울지역 아파트매매가격지수 증가율	20
〈그림 I-20〉 아파트 전세가격	21
〈그림 I-21〉 한·미 기준금리와 한국의 시장금리	22
〈그림 I-22〉 원/달러, 원/100엔	23
〈그림 II-1〉 국제유가 추이	28
〈그림 II-2〉 역사적 민간소비 증감률(1996~2016)	30
〈그림 II-3〉 소비자심리지수	31
〈그림 II-4〉 최근 가계 소득 현황	32
〈그림 II-5〉 평균소비성향	33
〈그림 II-6〉 가계대출 이자부담 추이	33
〈그림 II-7〉 역사적 설비투자 증감률(1996~2016)	34
〈그림 II-8〉 제조업 설비투자압력	35
〈그림 II-9〉 업황전망	35
〈그림 II-10〉 역사적 건설투자 증감률(1996~2016)	36

〈그림 II-11〉 건축허가 연면적 증가율 추이 .....	37
〈그림 II-12〉 역사적 수출 증감률(1996~2016) .....	38
〈그림 II-13〉 품목별 수출경기(EBSI) .....	39
〈그림 II-14〉 역사적 GDP 증감률(1996~2016) .....	40
〈그림 II-15〉 경상수지 항목별 전망 .....	42
〈그림 II-16〉 전세가격, 임금총액 .....	43
〈그림 II-17〉 수입물가, 기대인플레이션율 .....	43
〈그림 II-18〉 원/달러, 달러 인덱스 .....	44

## 요약

2021년 우리경제는 세계경제의 회복세 확대에 따른 수출호조가 경제성장을 견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경기의 회복세가 하반기로 갈수록 미약해지며 기대했던 4.0%에 못미치는 3.9%의 경제성장에 그치게 될 전망이다.

한편, 2022년 경제성장률은 기저효과가 점차 소멸하고, 중국의 경기둔화에 따라 수출의 성장세마저도 약화됨에 따라 다시 2%대 성장으로 회귀하여 2.9%를 기록할 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수출은 올해 높았던 실적에 대한 역(逆)기저효과와 중국의 성장세 둔화에 따른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2.5%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 급등에 따른 고강도 방역조치의 재시행에 따른 생산차질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수출증가세가 더욱 약화하게 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부문의 공격적 투자와 신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확대가 동시에 이루어지며 2.7%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억제 의지로 부진을 지속해 온 건설투자는 공공재개발, 3기 신도시 등 정부주도의 건물건설이 증가하고 SOC 투자확대에 따른 토목실적의 개선에 힘입어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수부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소비는 3.1% 성장하며, 미흡한 수준의 회복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경기회복 및 정부의 부양노력에 힘입어 일시적 반등을 보였던 민간소비는 백신보급 확산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급증하게 됨에 따라 재(再)위축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자영업자 소득 감소 등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 영향 뿐만 아니라, 금리인상으로 가중된 가계부채원리금 상환부담, 전·월세 폭등에 따른 집세인상 등의 구조적 원인 역시 민간소비 회복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집세 등 거주비 상승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 가격이 2021년 상반기 중 점진적으로 안정을 되찾게 됨에 따라 1.9%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원·달러환율의 경우, 美연준의 양적완화 기조 지속 및 미국 外 주요국의 경기개선에 따른 영향으로 약보합세를 보여오던 환율은 미국의 경기회복세가 확대되고 美연준이 테이퍼링 절차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하면서 강세흐름을 지속하며 1,170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제 I 장

# 최근 경제동향

1. 경제성장
2. 수출입(통관기준) 및 경상수지
3. 고용
4. 물가
5. 금리와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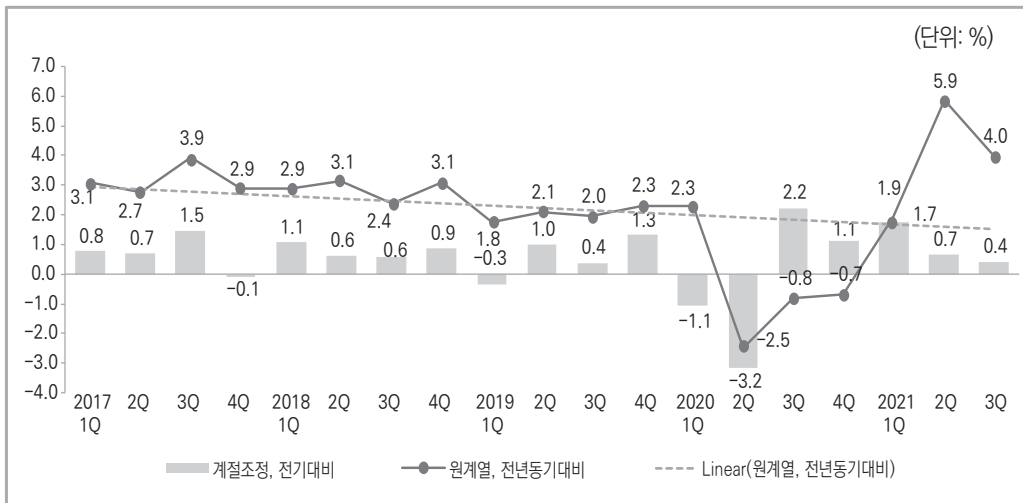


## 1. 경제성장

□ '21년 상반기 중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던 우리경제는 하반기 경과하며 코로나19 확진세 확대의 영향으로 회복세가 줄어드는 모습  
('21년 3/4분기, 전년동기비 4.0%, 전기대비 0.4%)

- 3/4분기 전기대비 성장률이 0.4%에 그친 가운데,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은 기저효과 영향에 힘입어 4% 수준을 기록
  - 전기비: -1.1%(2020.1/4) → -3.2%(2020.2/4) → 2.2%(2020.3/4) → 1.1%(2020.4/4) → 1.7%(2021 1/4) → 0.7%(2021 2/4) → 0.4%(2021 3/4)
  - 동기비: 2.3%(2020.1/4) → -2.5%(2020.2/4) → -0.8%(2020.3/4) → -0.7%(2020.4/4) → 1.9%(2021 1/4) → 5.9%(2021 2/4) → 4.0%(2021 3/4)

〈그림 I-1〉 실질GDP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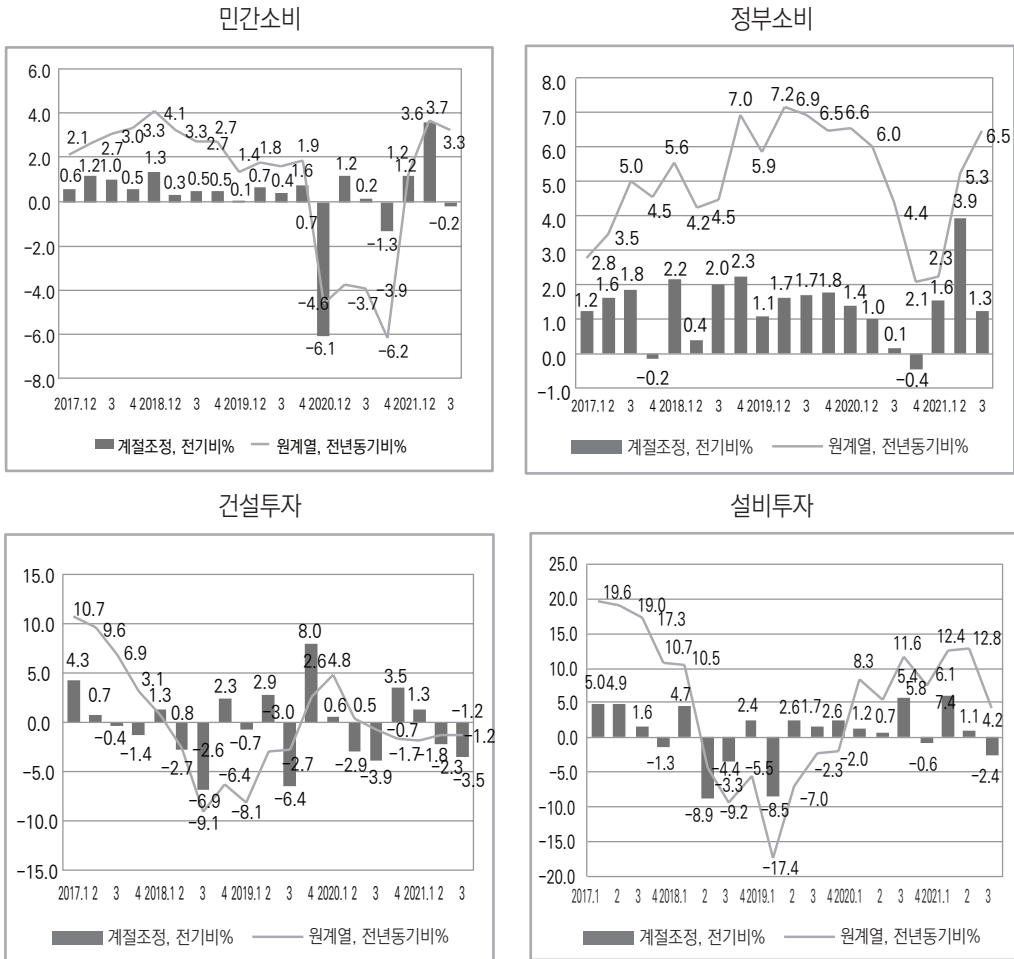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최종수요) '21년 3/4분기 민간소비를 비롯한 내수부문은 소비심리 위축과 공급망 차질의 영향으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인 반면, 수출은 대외수요 확대에 힘입어 견조한 상승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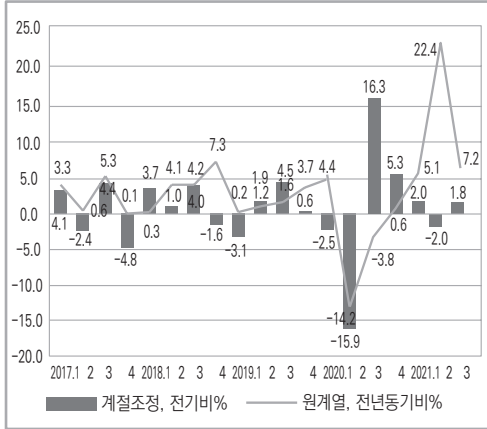
- 민간소비는 백신접종 확대에도 불구하고 소비심리 위축에 따라 회복세 둔화
- 건설투자는 여전히 건축부문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감소흐름 지속
- 설비투자는 반도체 부문 및 기계류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공급망 차질의 영향으로 개선흐름은 축소
- 수출은 주요국 수입확대에 힘입어 양호한 증가세 지속

〈그림 1-2〉 주요 최종수요 항목별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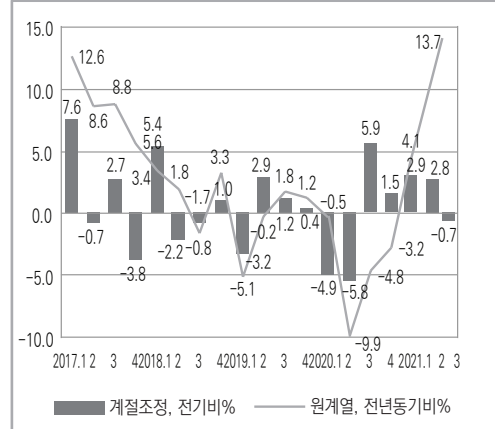
(단위: %)



수출(재화+서비스)



수입(재화+서비스)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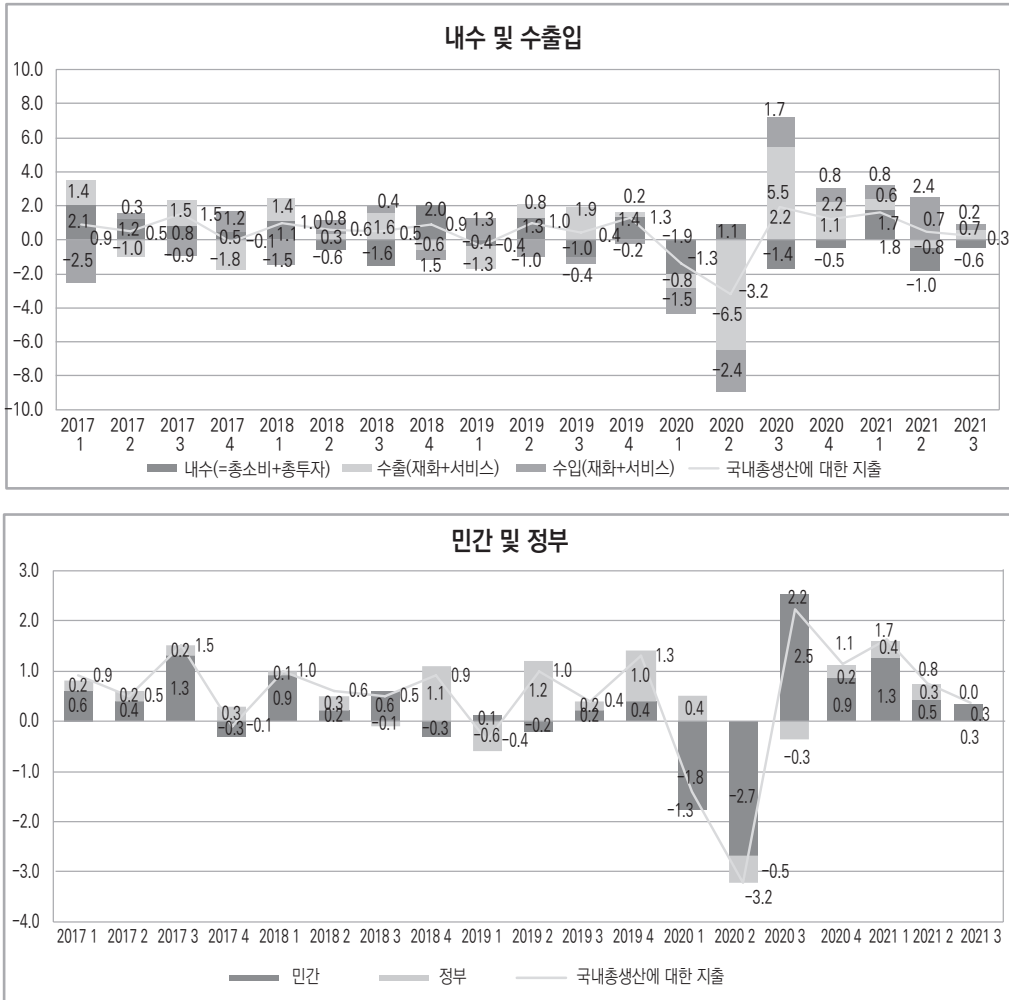
□ (기여도) 내수의 기여도가 마이너스(-) 반락을 기록한 가운데, 수출의 기여도 증가

- 내수(총소비+총투자): -1.9%(2020.1/4) → 1.1%(2020.2/4) → -1.4%(2020.3/4) → -0.5%(2020.4/4) → 1.8%(2021.1/4) → 2.4%(2021.2/4) → -0.6%(2021.3/4)
  - ✓ 총소비: -2.9%(2020.1/4) → 0.7%(2020.2/4) → 0.1%(2020.3/4) → -0.7%(2020.4/4) → 0.8%(2021.1/4) → 2.3%(2021.2/4) → 0.1%(2021.3/4)
  - ✓ 총투자: 1.0%(2020.1/4) → 0.4%(2020.2/4) → -1.5%(2020.3/4) → 0.2%(2020.4/4) → 1.1%(2021.1/4) → 0.1%(2021.2/4) → -0.7%(2021.3/4)
- 순수출: 0.6%(2020.1/4) → -4.3%(2020.2/4) → 3.6%(2020.3/4) → 1.6%(2020.4/4) → -0.3%(2021.1/4) → -1.7%(2021.2/4) → 0.9%(2021.3/4)

○ 민간부문과 정부부문 기여도는 지난 분기에 비해 모두 감소

<그림 1-3> 부문별 GDP 성장 기여도

(단위: 계절조정 전기비,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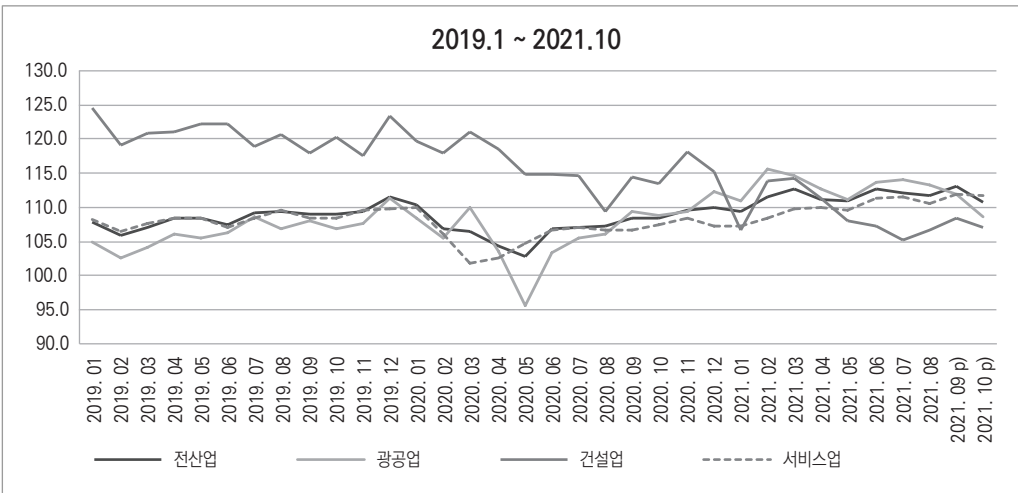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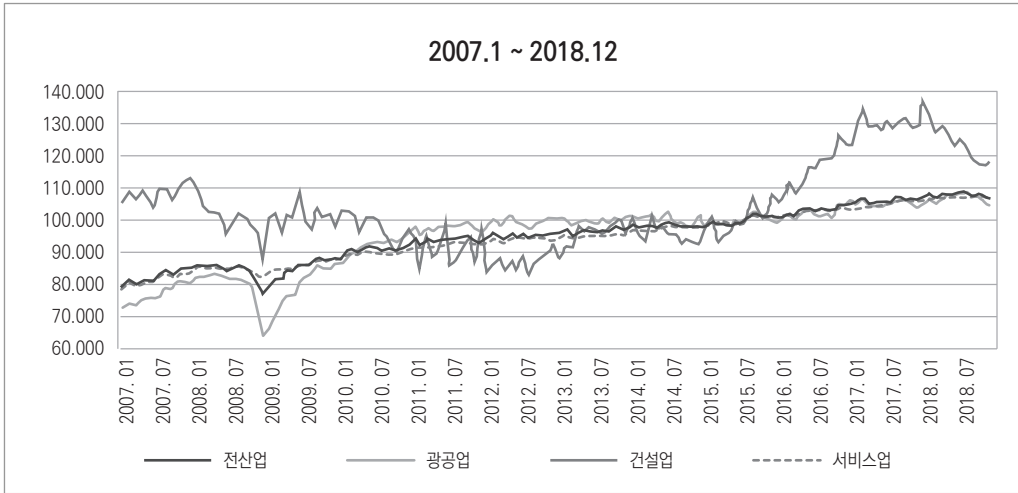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10월 산업생산. 대내외 수요회복에 힘입어 회복흐름을 지속해 오던 산업생산은 코로나19 확산세 확대에 감소세로 전환. 소비는 소폭 증가 기록
- (생산) 전산업생산은 동기비로는 4.8% 증가하고 전기비로는 1.9% 감소. 광공업은 자동차를 중심으로, 서비스업은 금융·보험을 중심으로 생산감소

- 전산업생산: (전기비) -0.1%(2021.8월) → 1.1%(2021.9월) → -1.9%(2021.10월)
- 제조업 생산은 의약품 및 의복 등에서 증가, 자동차 및 기계장비 등에서 감소
  - ✓ 전체 제조업: (전기비) -0.3%(2021.8월) → 1.1%(2021.9월) → -3.1%(2021.10월)
  - ✓ 주요 증가 업종(전기비): 의약품(3.2%), 의복및모피(5.1%)
  - ✓ 주요 감소 업종(전기비): 자동차(-5.1%), 기계장비(-4.4%)
- 서비스업 생산은 숙박·음식업에서 늘었으나 금융·보험 등에서 줄면서 감소
  - ✓ 전체 서비스업: (전기비) -0.8%(2021.8월) → 1.4%(2021.9월) → -0.3%(2021.10월)
  - ✓ 주요 증가 업종(전기비): 숙박·음식업(4.5%), 운수·창고(1.1%)
  - ✓ 주요 감소 업종(전기비): 금융·보험(-2.1%), 전문·과학·기술(-2.5%)
- (소비) 소매판매는 전년동기대비 7.4% 증가. 전기대비로는 가전제품 등 내구재와 의복 등 준내구재의 판매증가에 힘입어 0.2% 소폭 증가
  - 전체소매판매: (전기비) -0.8%(2021.8월) → 2.4%(2021.9월) → 0.2%(2021.10월)
- (투자) 설비투자는 기계류 및 운송장비 투자가 모두 줄어 전기대비 감소. 건설투자는 부진한 흐름 지속
  - 설비투자: (전기비) -4.4%(2021.8월) → -1.8%(2021.9월) → -5.4%(2021.10월)
  - 건설투자: (전기비) 1.4%(2021.8월) → 1.8%(2021.9월) → -1.3%(2021.10월)

〈그림 1-4〉 산업생산

(단위: 지수(계절조정))



자료: 통계청



〈표 I-1〉 주요 산업활동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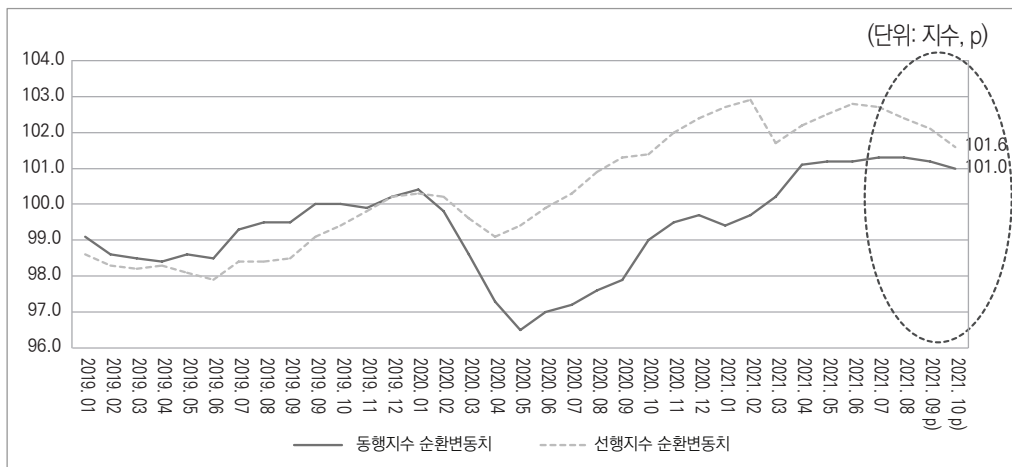
(단위: 전년동월(기)비 %, 괄호 안의 숫자는 전기비)

		2020년			2021년			
		연간	3/4	10월	3/4	8월	9월 p)	10월 p)
생산	전산업	-1.2	-0.9 (2.8)	-3.1 (0.1)	3.9 (0.5)	4.7 (-0.5)	5.9 (-0.1)	4.8 (-1.9)
	제조업	-0.3	0.4 (6.4)	-2.8 (-0.6)	5.1 (0.4)	7.6 (0.0)	10.4 (-0.3)	4.6 (-3.1)
	서비스업	-2.0	-1.7 (2.0)	-2.5 (0.8)	3.9 (0.9)	4.2 (0.2)	4.2 (-0.8)	5.2 (-0.3)
	평균가동률	71.3	71.5	73.6	73.9	74.1	74.1	71.1
소비	소매판매	-0.2	1.0 (-1.1)	-0.1 (-0.7)	5.0 (0.1)	7.9 (-0.6)	3.8 (-0.8)	7.4 (0.2)
투자	설비투자	6.0	7.7 (2.2)	-2.0 (-5.0)	5.9 (-2.4)	11.7 (3.3)	12.6 (-4.4)	2.9 (-5.4)
	건설기성	-4.1	-4.2 (-2.8)	-10.5 (-0.7)	-6.3 (-1.9)	-8.1 (-1.9)	-0.1 (1.4)	-0.8 (-1.3)

자료: 통계청

- (경기) 점진적으로 증가해 오던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각각 101.6과 101.0을 기록하며 감소세 확대

〈그림 I-5〉 경기종합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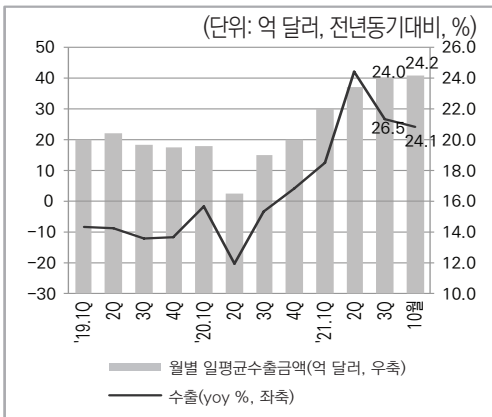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2. 수출입(통관기준) 및 경상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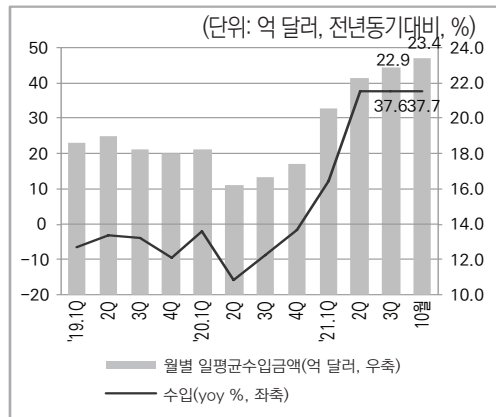
- 무역수지 흑자 2021년 3분기 77.1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83.9억 달러 감소(전기대비 0.8억 달러 증가)
- 2021년 3/4분기 수출은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등 주력 수출품목들이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석유화학과 철강 제품까지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높은 실적을 기록
- 수입 역시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큰 폭 증가
- 2021년 3/4분기 무역수지 흑자 77.1억 달러로 수출호조에 불구하고 수입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흑자폭은 크게 감소
  - 수출은 1,646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동기대비 26.5% 증가
  - 수입은 1,569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7.6% 증가
    - ✓ 2021년 10월 수출 555.5억 달러(전년동기대비 24.0% 증가), 수입 538.6억 달러(전년동기대비 37.8% 증가)로 무역수지 흑자 16.9억 달러 기록
    - ✓ 2021년 11월 수출 604.4억 달러(전년동기대비 32.1% 증가), 수입 573.6억 달러(전년동기대비 43.6% 증가)로 무역수지 흑자 30.9억 달러 기록

〈그림 1-6〉 수출증가율 및 일평균 수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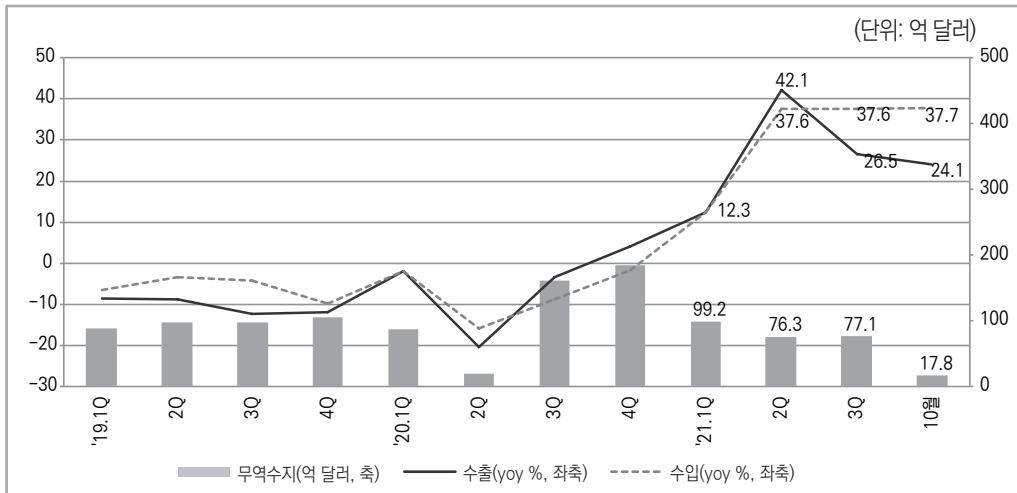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그림 1-7〉 수입증가율 및 일평균 수입액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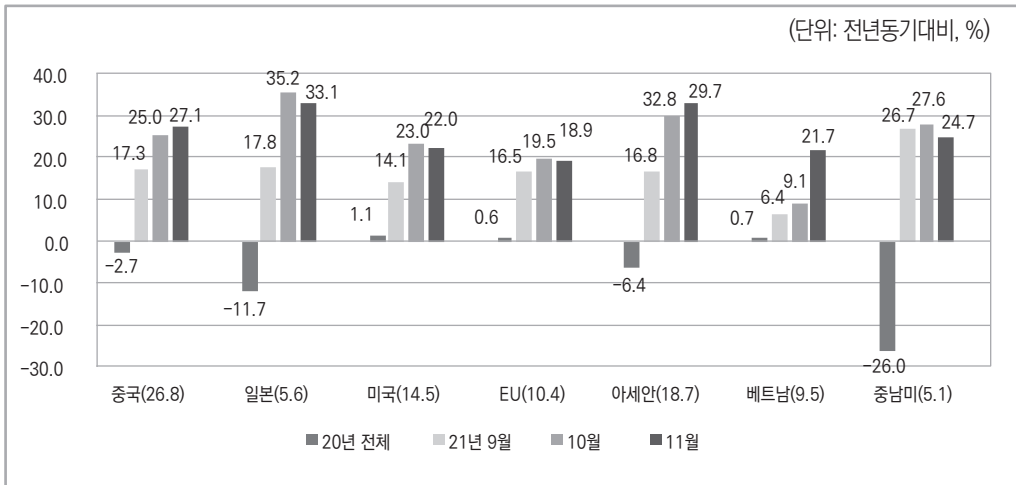
〈그림 I-8〉 통관기준 무역수지-수출-수입



자료: 한국은행, 관세청

- (지역별 수출) 주요국의 경기회복 및 소비부양 노력에 힘입어 지역별 수출은 4대 시장(미국, 중국, EU, 아세안)에 대한 수출이 모두 증가
  - 미국: 일부 물류적체에도 불구하고 생산 및 소비지표가 양호한 실적을 보이며 대미수출 호조 지속
    - ✓ 주요 수출증가품목: 반도체, 가전, 일반기계
  - 중국: 전력난 등 경기회복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내수부양 정책에 힘입어 소비가 개선되며 대중수출 증가세 지속
    - ✓ 주요 수출증가품목: 반도체, 석유화학, 무선통신기기
  - 유로: 친환경차, 선박, 바이오헬스 수출에 힘입어 對EU 수출액은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의 상승세 지속
    - ✓ 주요 수출증가품목: 자동차, 차부품, 선박
  - 일본: 대일수출은 석유제품과 철강을 중심으로 증가
    - ✓ 주요 수출증가품목: 석유제품, 철강, 일반기계

〈그림 1-9〉 주요 지역별 수출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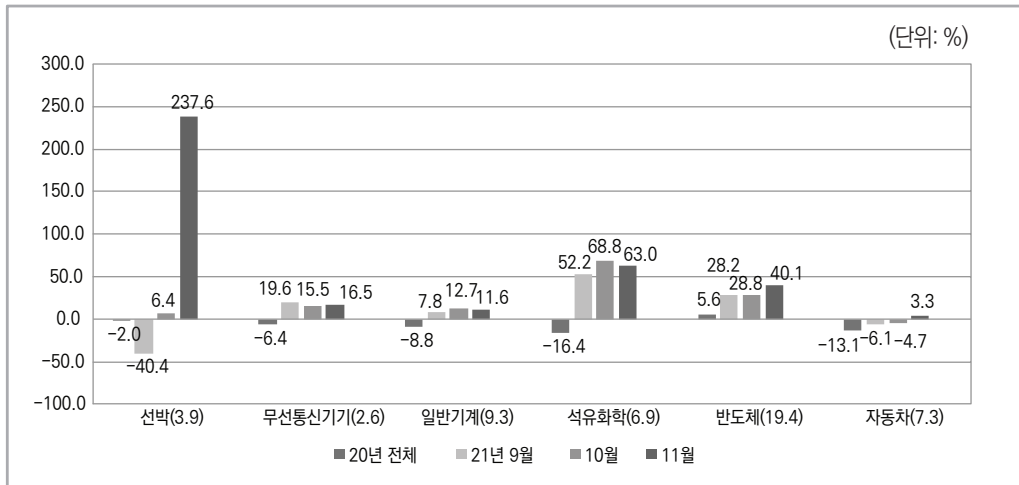
주: ( ) 내 수치는 2020년 기준 지역별 수출비중

자료: 한국무역협회, 통계청

- (품목별 수출) 반도체, 석유화학, 무선통신기기 등 주력품목이 기록적인 실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등 신성장 품목들 역시 높은 상승세 지속
  - 반도체: D램 가격이 소폭 하락하였으나 주요 모바일 제조업체들의 잇따른 신규 스마트폰 출시로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라 양호한 수출 실적 지속
    - ✓ '21년 상반기 메모리반도체 세계시장 점유율: 한국(58.6%), 미국(27.3%), 일본(7.8%), 대만(4.3%)
    - ✓ 신규 CPU 출시와 주요 데이터센터 업체들의 서버증설에 따라 고용형 D램 수요가 확대 영향 지속
  -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 공급차질 등 하방리스크 지속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차 및 SUV차량 수요증가 및 단가상승의 영향으로 미국, EU 등 주요지역에 대한 수출을 중심으로 증가세로 전환
  - 일반기계: 주요국의 투자 재개에 따라 인프라 투자가 늘면서 건설기계류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공작기계류 역시 수출 증가
  - 석유화학: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수출단가가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중국, 아세안 등 주요 지역으로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
    - ✓ 현재 반도체에 이은 2위 수출품목

- ✓ 국제유가 상승 이외에도 위생용품, 포장재 등 비대면 생활을 위한 석유화학 제품의 수요가 크게 확대

〈그림 I-10〉 주요 품목별 수출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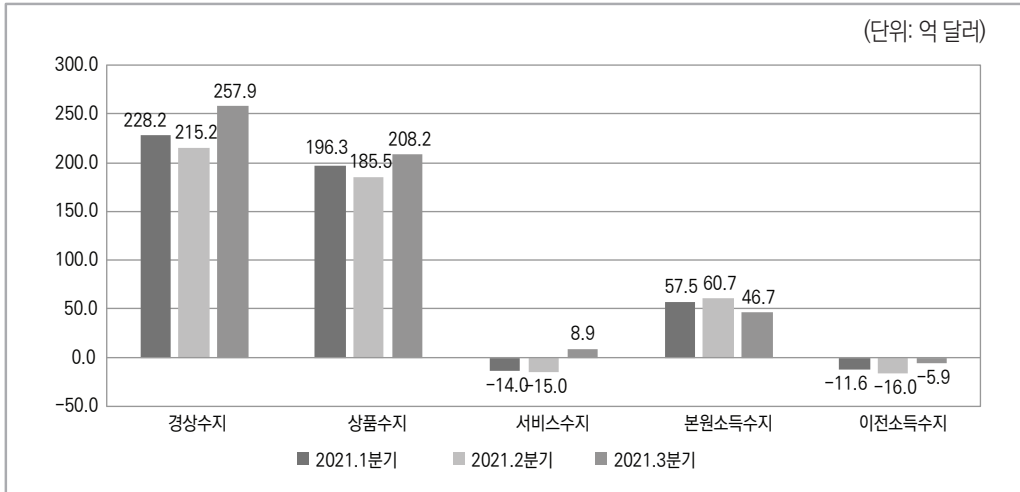


주: ( )내 수치는 2020년 기준 품목별 수출비중

자료: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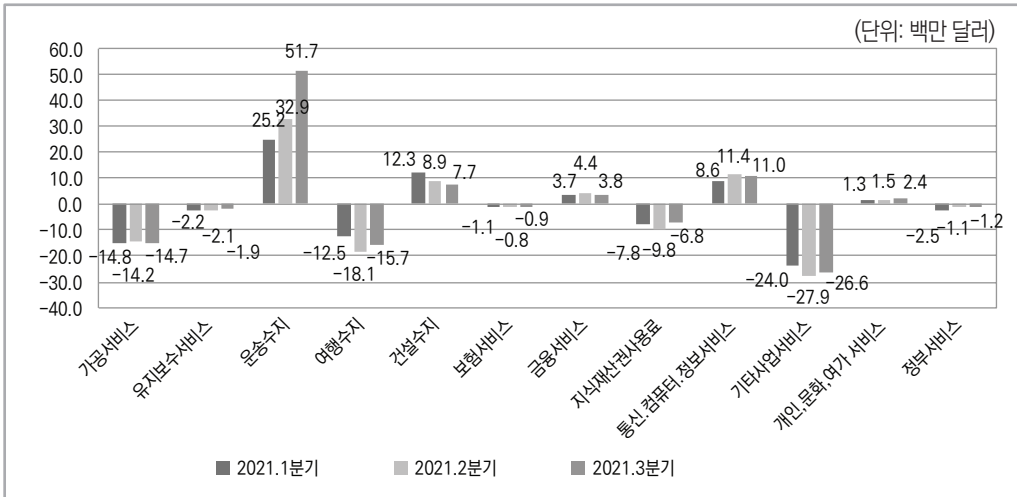
- 2021년 3/4분기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와 서비스수지 개선이 동시에 이뤄지며 257.9억 달러 규모의 흑자를 기록
- 상품수지가 양호한 흑자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서비스수지가 흑자로 전환되면서 경상수지는 257.9억 달러 흑자 기록
  - 반도체를 비롯한 IT품목의 수출증가에 힘입어 큰 폭의 상품수지 흑자 기록
  - 서비스수지의 흑자전환은 운송수지 흑자의 큰 폭 증가에 기인

〈그림 I-11〉 경상수지 항목별 증감



자료: 한국은행

〈그림 I-12〉 서비스수지 항목별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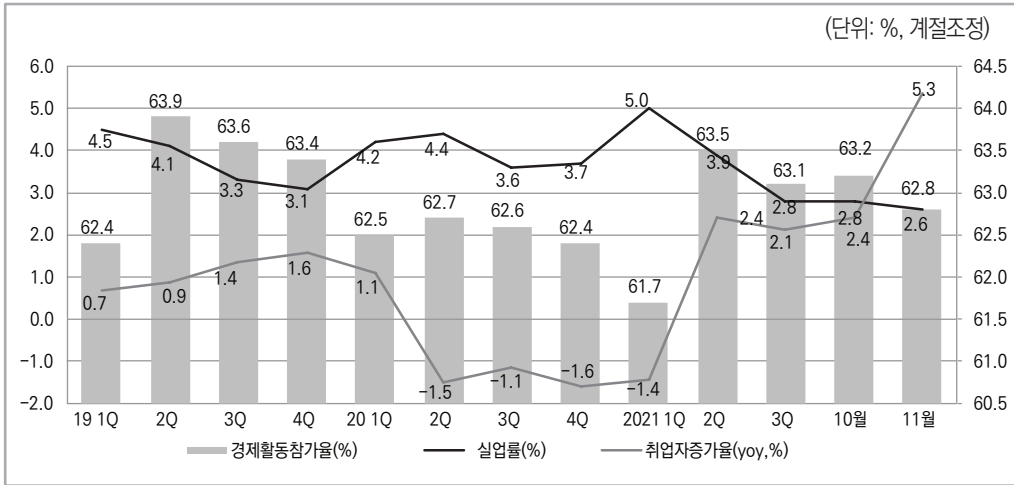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3. 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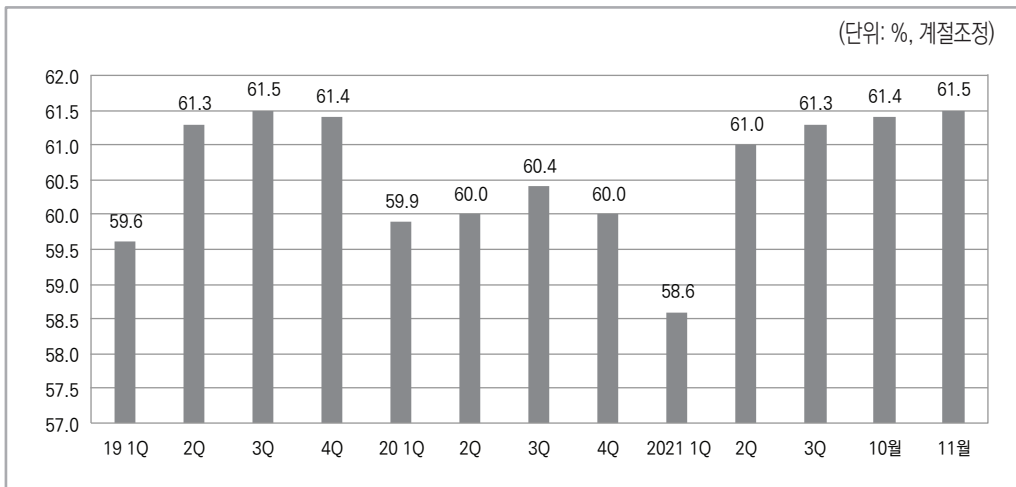
- 고용시장. 2021년 11월 기준, 취업자 2,779만명을 기록하며 전년동월대비 55만명 증가. 고용률 61.5%, 실업률은 2.6% 기록
  -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은 61.5% 수준으로 전년동기대비 0.8%p 상승
    - 고용률(%): 57.4('21.1) → 58.6('21.2) → 59.8('21.3) → 60.4('21.4) → 61.2('21.5) → 61.3('21.6) → 61.3('21.7) → 61.2('21.8) → 61.3('21.9) → 61.4('21.10) → 61.5('21.11)
    -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5.1%로 전년동기대비 2.7%p 상승
  -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 실업률은 2.6%로 전년동기대비 0.8%p 감소
    - 실업률(%): 5.7('21.1) → 4.9('21.2) → 4.3('21.3) → 4.0('21.4) → 4.0('21.5) → 3.8('21.6) → 3.2('21.7) → 2.6('21.8) → 2.7('21.9) → 2.8('21.10) → 2.6('21.11)
    -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5.5%로 전년동기대비 2.6%p 하락
  - 취업자는 전년동기대비 55만명 증가한 2,779만명 기록.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도소매업 등 대면서비스업 취업자 및 40~50대의 감소세는 지속된 반면, 제조업 및 50대 취업자는 증가
    - 산업별로는 보건및 사회복지서비스업(+27.9만), 운수 및 창고(+14.8만), 교육서비스업(+10.5만) 부문에서 증가하고 감소세를 지속해 오던 제조업(+5.1만)에서도 소폭이나마 증가한 반면, 확진세 확대에 따라 음식 및 숙박(-8.6만), 도소매업(-12.3만) 등은 감소세 지속
    -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의 취업자가 33.1만명, 20대 15.6만명, 50대에서 14.9만명 늘어난 반면, 30대에서는 6.9만명, 40대 2.7만명 감소
    -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는 61.1만명, 임시근로자는 각각 10.6만명 증가한 반면, 일용근로자는 17.5만명 감소
  -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52.4만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0.6만명 감소

〈그림 1-13〉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취업자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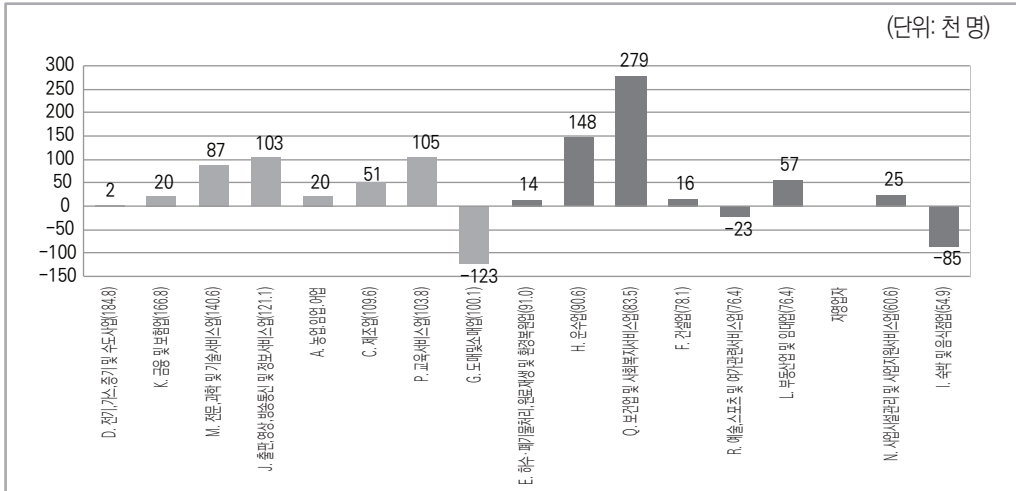
〈그림 1-14〉 고용률



자료: 한국은행



〈그림 I -15〉 산업별 취업자 증감(2020.11 → 2021.11)



주: ( ) 내 수치는 2020년 산업별 임금수준(전산업 평균=100)

자료: 한국은행

## 4. 물가

□ 국제유가 등 원자재가격 상승, 경기개선에 따른 수요압력 상승에 기저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생산자물가 및 소비자물가의 상승폭이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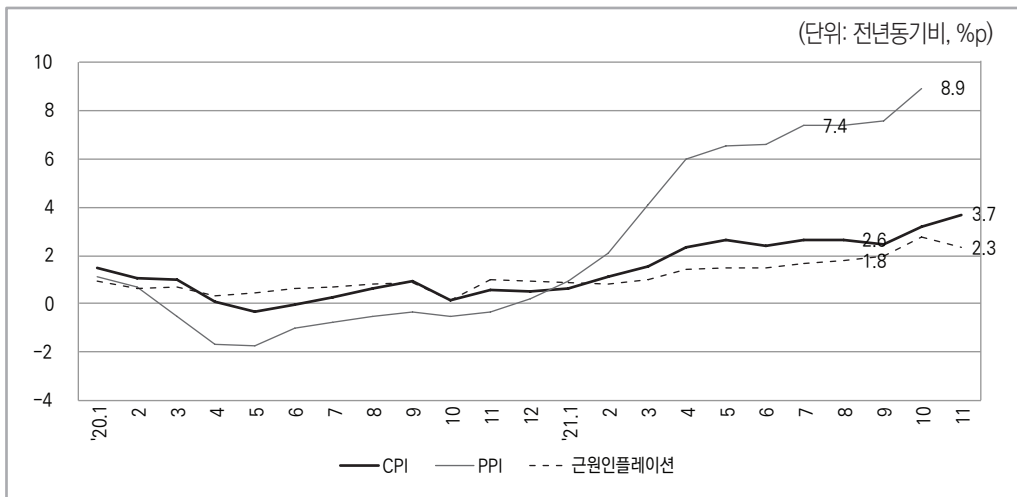
○ 대외요인으로는 배럴당 80달러 내외 수준에 이른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 및 원·달러 환율 상승이 국내 물가의 상방요인으로 작용

○ 대내요인으로는 농축수산물 가격이 높은 상승세를 여전히 지속중인 가운데 경기 회복으로 인한 수요압력 개선과 명목임금 상승이 상품 및 서비스 가격에 대한 상방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소비자물가는 3% 중반 수준을 초과

- 기대인플레이션율: 1.8%('21.1월) → 2.0%('21.2월) → 2.1%('21.3월) → 2.1%('21.4월) → 2.2%('21.5월) → 2.3%('21.6월) → 2.3%('21.7월) → 2.4%('21.8월) → 2.4%('21.9월) → 2.4%('21.10월) → 2.7%('21.11월)

- 생활물가지수<sup>1)</sup>(전년동월비): 0.3%(’21.1월) → 1.2%(’21.2월) → 1.5%(’21.3월) → 2.8%(’21.4월) → 3.3%(’21.5월) → 3.0%(’21.6월) → 3.4%(’21.7월) → 3.4%(’21.8월) → 3.1%(’21.9월) → 4.6%(’21.10월) → 5.2%(’21.11월)
- 집세상승 역시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
- 근원물가지수(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상품 및 서비스가격 상승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1.3%p 상승하며 2.3%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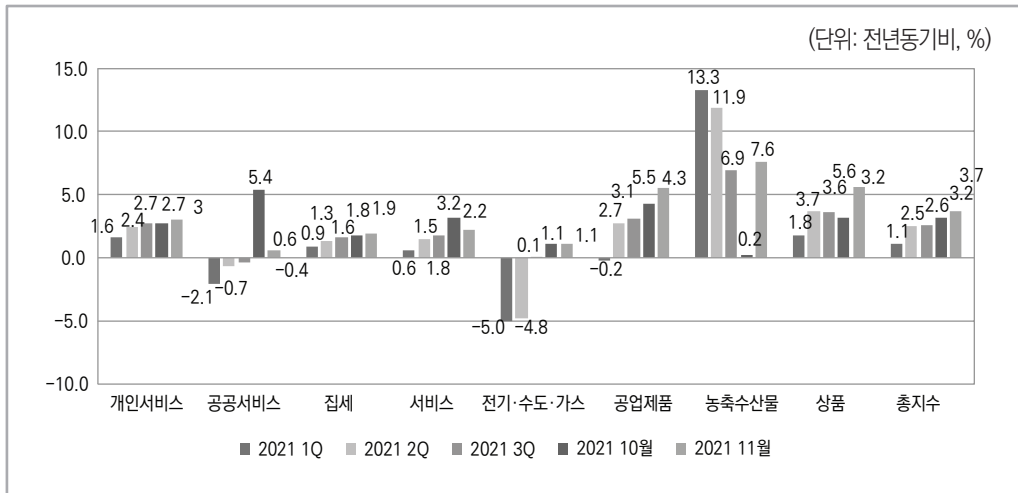
〈그림 I-16〉 주요 물가지수 증가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1) 전체 460개 품목 중 구입빈도 및 지출비중이 높은 141개 품목으로 작성한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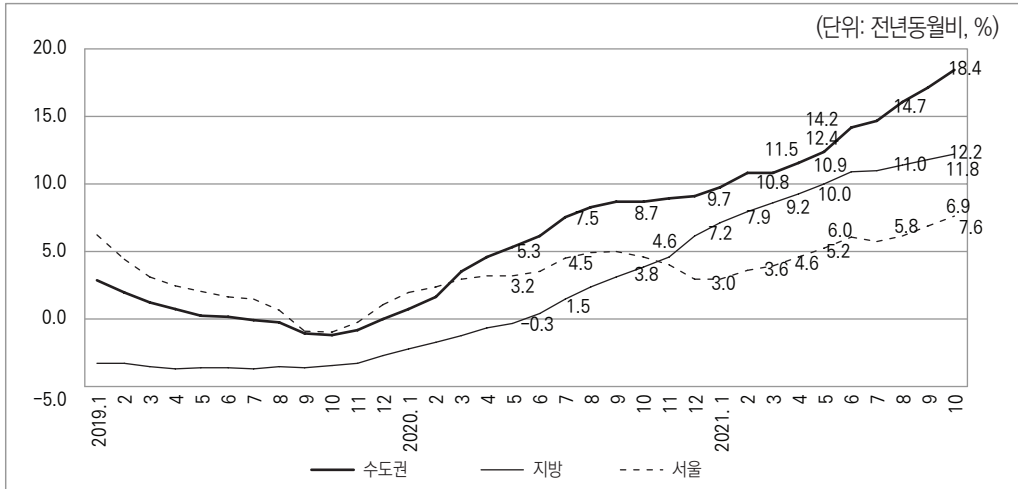
〈그림 I-17〉 품목성질별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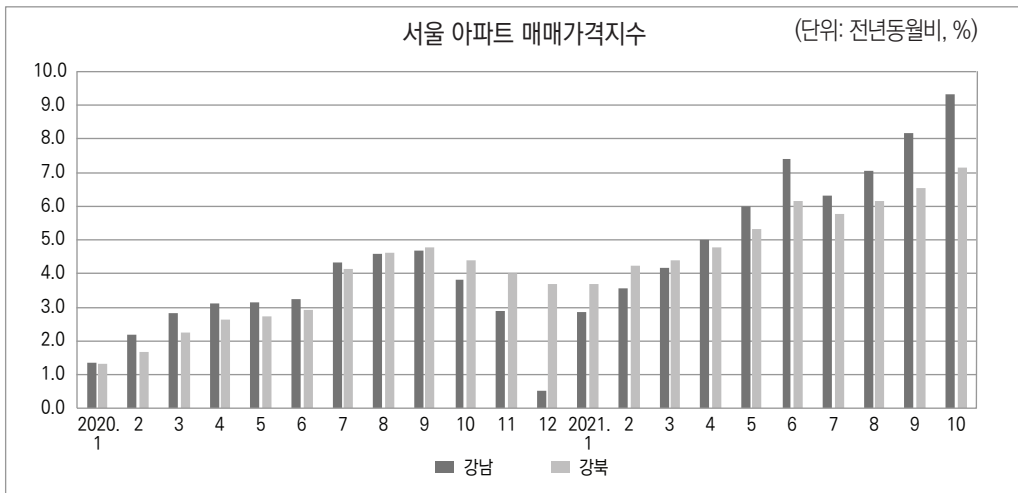
-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주택가격 상승률은 두 자릿수 증가세 지속. 전세가격은 매물부족 현상이 여전히 지속되는 가운데 재건축 이주수요 증가의 영향으로 가파른 상승세 지속
  - 아파트(수도권) 매매가격 증가율: 0.8%('20.1월) → 1.7%('20.2월) → 3.5%('20.3월) → 4.7%('20.4월) → 5.3%('20.5월) → 6.2%('20.6월) → 7.5%('20.7월) → 8.2%('20.8월) → 8.7%('20.9월) → 8.8%('20.10월) → 8.9%('20.11월) → 9.2%('20.12월) → 9.7%('21.1월) → 10.8%('21.2월) → 10.8%('21.3월) → 11.5%('21.4월) → 12.4%('21.5월) → 14.2%('21.6월) → 14.7%('21.7월) → 16.0%('21.8월) → 17.2%('21.9월) → 18.4%('21.10월)
  - 대출제한 조치에 따른 매물부족 및 거래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재개발, 교통망 개선 등 국지적 호재가 주택가격 상승률을 견인하고 있는 상황

〈그림 I-18〉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증가율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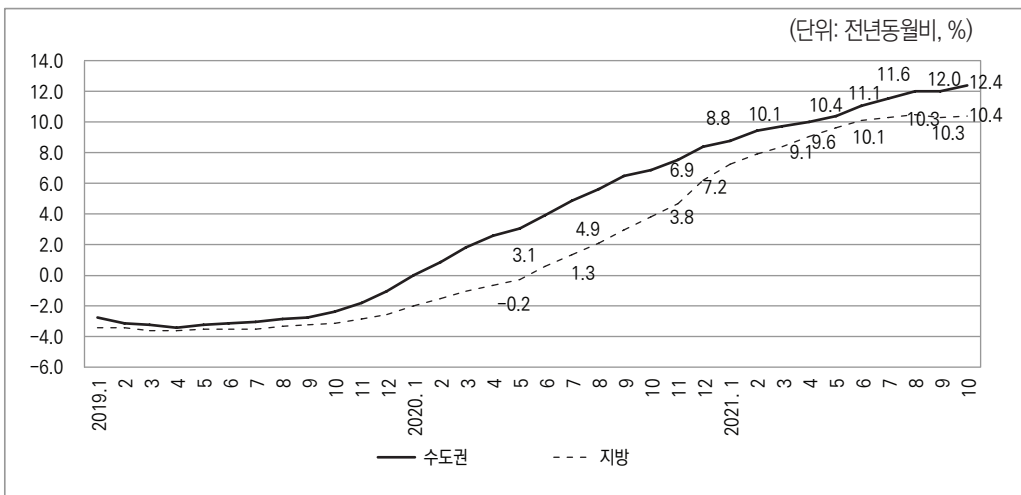
〈그림 I-19〉 서울지역 아파트매매가격지수 증가율



자료: 통계청

- 아파트(수도권) 전세가격 증가율: 0.0%(’20.1월) → 0.9%(’20.2월) → 1.8%(’20.3월) → 2.6%(’20.4월) → 3.1%(’20.5월) → 3.9%(’20.6월) → 4.8%(’20.7월) → 5.7%(’20.8월) → 6.4%(’20.9월) → 6.9%(’20.10월) → 7.7%(’20.11월) → 8.4%(’20.12월) → 8.9%(’21.1월) → 9.5%(’21.2월) → 9.9%(’21.3월) → 10.1%(’21.4월) → 10.5%(’21.5월) → 11.1%(’21.6월) → 11.6%(’21.7월) → 12.0%(’21.8월) → 12.0%(’21.9월) → 12.4%(’21.10월)

〈그림 I-20〉 아파트 전세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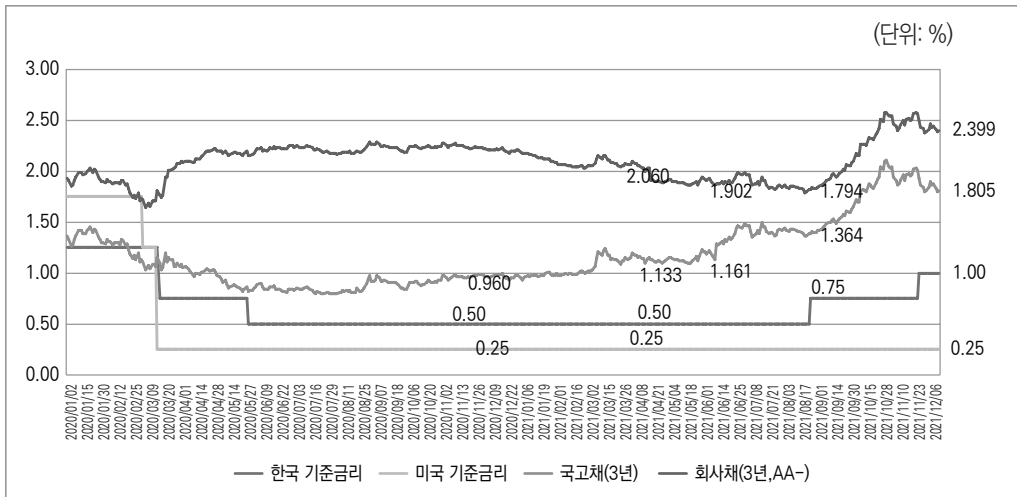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아파트 전세시장은 전세매물 부족, 전세가격 폭등, 전세 대비 월세 비중 증가가 여전히 영향을 미치면서 전세난이 지속
  - 전세가격 상승률은 '21년 10월 기준 전년동월대비 수도권 12.4%, 서울 7.5%까지 상승하며, 인기지역의 30평대 아파트 전세가가 20억을 돌파하는 등 이른바 '20억 전세시대'가 기정사실화
  - 특히, 서울 일부 대규모 단지의 재건축 및 리모델링 본격화에 따른 이주 증가로 주변 지역의 전세수요가 증가

## 5. 금리와 환율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8월과 11월에 기준금리를 0.25%p씩 두차례 인상하면서 한국의 기준금리는 역사상 최저금리였던 0.5%에서 18개월 만에 1.0%로 인상
- 시장금리는 기준금리 상승에 따라 동반 상승
  - 회사채(3년, AA-): 2.25%(20.11.17) → 2.23%(20.12.17) → 2.14%(21.1.15) → 2.04%(21.2.17) → 2.12%(21.3.17) → 2.06%(21.4.9) → 1.90%(21.5.26) → 1.97%(21.6.29) → 1.83%(21.7.27) → 1.82%(21.8.26) → 2.01%(21.9.24) → 2.42%(21.10.26) → 2.58%(21.11.23) → 2.39%(21.12.10)
  - 다만, 불확실성에 대한 시장심리를 반영하는 장·단기 스프레드는 아직 줄어들지 못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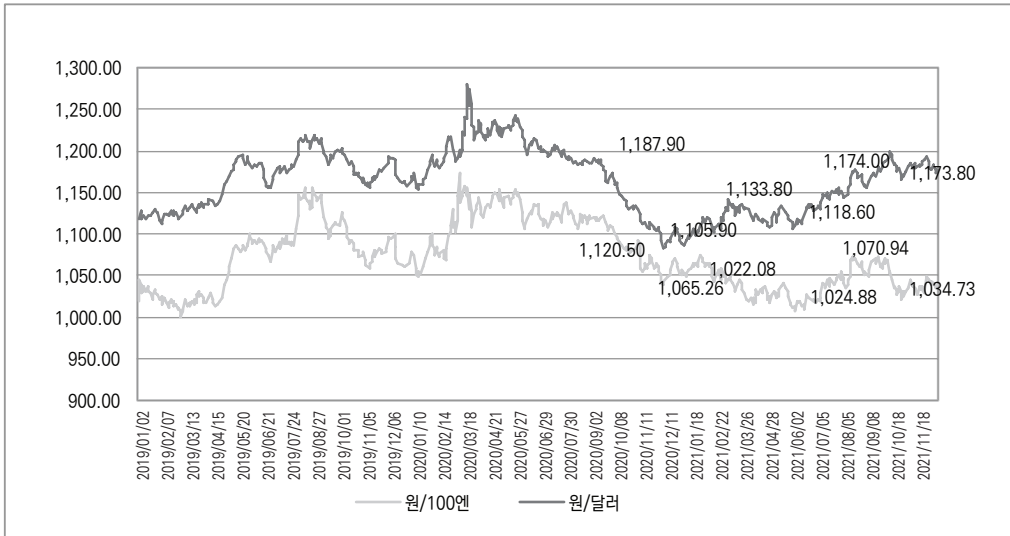
〈그림 I-21〉 한·미 기준금리와 한국의 시장금리



자료: 한국은행

- 원달러 환율. 달러화는 美인플레이션 우려가 현실화됨에 따라 연준이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언급하기 시작하면서 달러화는 강세흐름 지속. 미국의 건조한 경기회복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둔화하기 시작한 한국의 경기상황 역시 원화 대비 달러화의 강세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

〈그림 I-22〉 원/달러, 원/100엔



자료: 한국은행, 국제금융센터





## 제II장

# 국내 경제전망

1. 대외 여건
  - (1) 세계 경제성장
2. 2022년 국내 경제전망
  - (1) 경제성장
  - (2) 경상수지
  - (3) 물가
  - (4) 시장금리 및 원/달러 환율



# 1. 대외 여건

## (1) 세계 경제성장

- 세계경제는 코로나19 변이에 의한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주요국의 공격적인 경기부양책에 따라 경기회복세를 지속. 다만,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공급망 차질, 중국 성장 둔화 여파로 세계경기의 회복세는 약화
- (미국) GDP의 10% 수준에 이르는 천문학적 규모의 경기부양책과 빠른 속도의 백신 보급에 힘입어 고용 및 소비가 확대되며 양호한 회복세를 이어가는 모습
  - GDP 성장률(전기비): 1.5%(1/4분기) → 1.6%(2/4분기) → 0.5%(3/4분기)
  - 실업률: 5.2%(8월) → 4.8%(9월) → 4.6%(10월)
- (중국) 미·중 무역갈등 양상의 지속 및 지지부진한 기업구조조정이 여전히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운데 형다사태, 전력난 등 악재의 영향으로 실물지표가 감소하며 회복세 둔화
  - GDP 성장률(동기비): 18.3%(1/4분기) → 7.9%(2/4분기) → 4.9%(3/4분기)
- (일본) 코로나19 확산세 확대로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가 위축되었으나 새로운 내각의 지원정책에 따라 완만한 개선에 대한 기대감 확대
  - GDP 성장률(전기비): -1.1%(1/4분기) → 0.4%(2/4분기) → -0.8%(3/4분기)
- (유로지역) 코로나19 재확산 및 변이바이러스 확대로 봉쇄조치까지 내려졌던 유로지역은 백신접종 확대와 봉쇄조치 완화에 힘입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
  - GDP 성장률(전기비): -0.3%(1/4분기) → 2.1%(2/4분기) → 2.2%(3/4분기)
- (신흥국) 수출호조에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세 심화에 따른 생산차질 및 소비둔화의 영향으로 경기개선 속도가 더딘 흐름. 다만, 백신접종률 상승에 따라 산업생산이 다소 살아나고 있는 상황

〈표 II-1〉 세계 경제 전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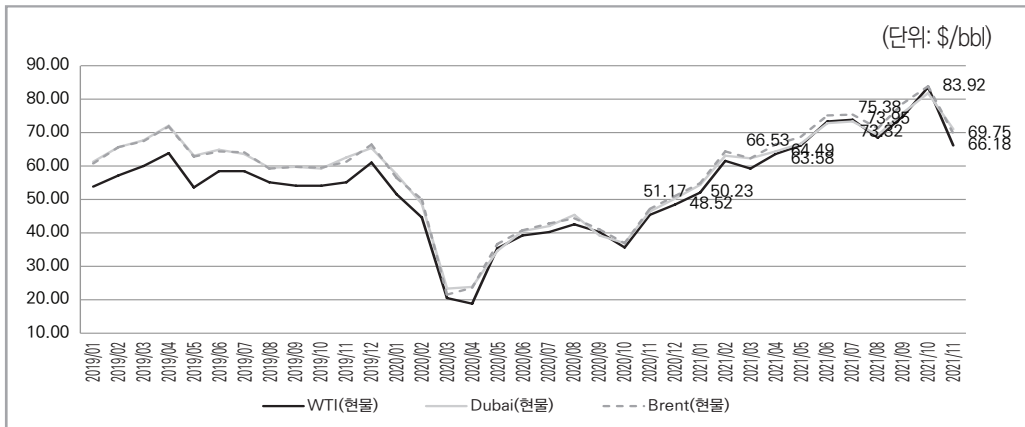
	실적치	2021. 10월 현재 전망치		2021. 7월 전망치와 비교(%p)	
		2020	2021	2021	2022
세계	-3.2	5.9	4.9	-0.1	0.5
선진국	-4.6	5.2	4.5	-0.4	0.1
미국	-3.5	6.0	5.2	-1.0	0.3
영국	-9.9	6.8	5.0	-0.2	0.2
유로존	-6.6	5.0	4.3	0.4	0.5
일본	-4.8	2.4	3.2	-0.4	0.2
신흥개도국	-2.2	6.4	5.1	0.1	-0.1
중국	2.3	8.0	5.6	-0.1	-0.1
인도	-8.0	9.5	8.5	0.0	0.0
브라질	-4.1	5.2	1.5	-0.1	-0.4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Oct 2021)

(2) 국제 유가

□ 주요국의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확대 및 주요 산유국 감산, 그리고 허리케인 아이다(Ida)의 영향으로 배럴당 80달러 중반 수준까지 치솟았던 국제유가는 현재 미테이퍼링, 중국 경기둔화 및 OPEC+의 감산규모 완화결정의 영향으로 60달러선까지 하락

〈그림 II-1〉 국제유가 추이



자료: 한국석유공사(www.petronet.co.kr)

- (전망) 세계경제의 회복에 따른 원유수요가 증대되는 가운데, OPEC+의 점진적인 감산완화와 비OPEC의 원유공급 확대가 동시에 이뤄지며 국제유가는 큰 변동 없이 현재의 수준을 지속해 나갈 전망

〈표 II-2〉 세계 석유 수급 전망

(단위: 백만bbl/d)

구분	2020	2021					2022
		1/4	2/4	3/4	4/4	평균	평균
수요	92.30	94.60	96.71	99.06	100.06	97.63	101.25
공급	94.17	92.72	94.92	98.03	99.75	96.38	101.79
OPEC 공급(원유)*	30.71	30.37	30.78	32.46	33.59	31.81	34.18
비OPEC 공급	63.46	62.35	64.14	65.57	66.15	64.57	67.61
재고변동(공급-수요)	-1.88	1.87	1.80	1.03	0.31	1.25	-0.55

주: \*OPEC 12개국

자료: EIA Short Term Energy Outlook Dec 2021

〈표 II-3〉 해외 주요기관 유가(기준유가) 전망

(단위: \$/bbl)

기관 (전망시기)	유종	2020 평균	2021				평균	2022 평균
			1Q	2Q	3Q	4Q		
EIA 2021.12	WTI	39.17	58.09	66.19	70.61	75.96	67.87	66.42
EIA 2021.12	Brent	41.69	61.12	68.91	73.45	78.27	70.60	70.05

주: EIA(美 에너지정보청)

자료: EIA

- 이상의 대외여건을 감안하여 전망의 주요 전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

〈표 II-4〉 전망의 주요 전제

	2020년	2021년	2022
세계경제성장률	-3.2%	5.9%	4.9%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40.43	\$69.23	\$68.24

## 2. 2022년 국내경제전망

### (1) 경제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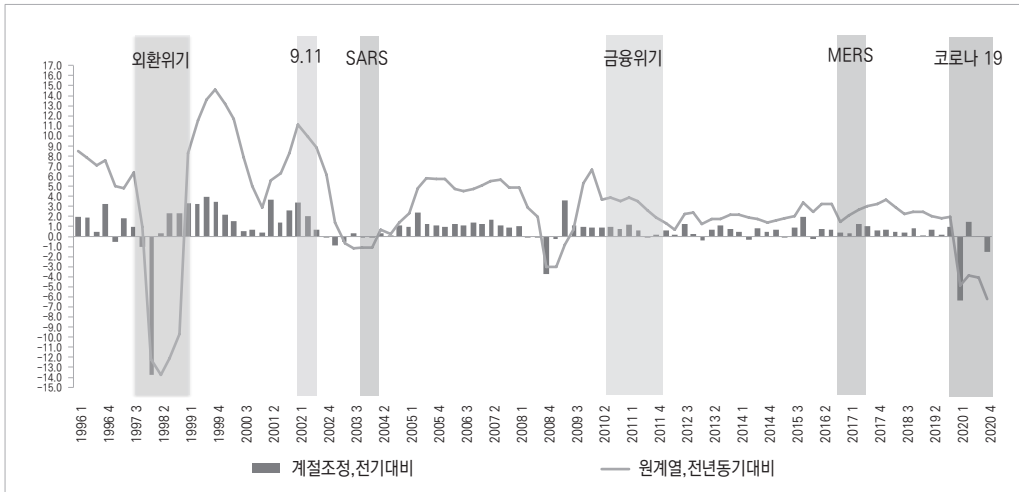
□ 민간소비: 2021년 3.3%(상반2.4, 하반3.2) → 2022년 3.1%(상반2.9 하반3.3)

- 2021년 민간소비는 상반기 중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주식·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 등의 복합적 영향으로 회복흐름을 이어갔으나,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장기화 및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소비심리의 개선이 지연되면서 회복세가 약화

#### ▶ 주요 위기별 민간소비 증감률

- ✓ 외환위기: -11.6%('98.1Q~'98.4Q, 평균)
- ✓ 사스: -0.7%('03.2Q)
- ✓ 금융위기: -3.0%('08.4Q~'09.1Q, 평균)
- ✓ 메르스: 1.9%('14.2Q)
- ✓ 코로나19: -5.0(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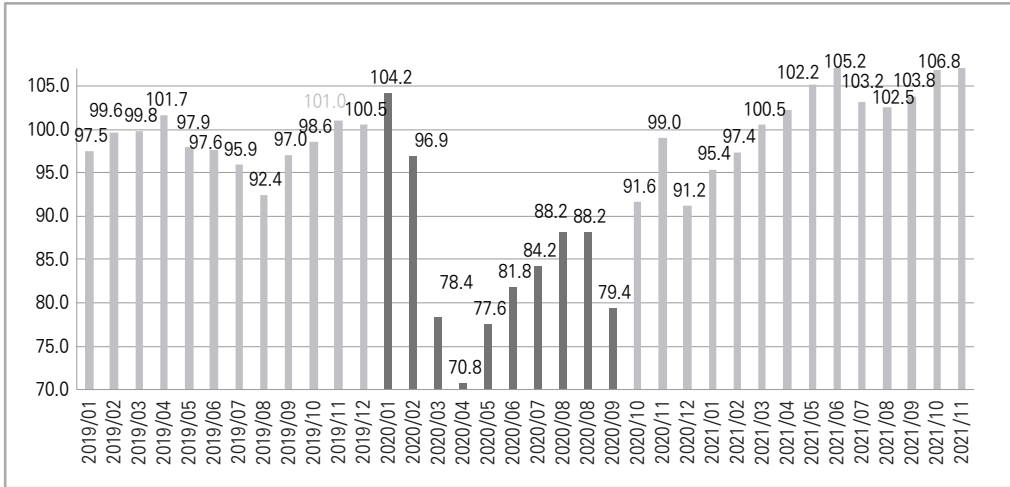
〈그림 II-2〉 역사적 민간소비 증감률(1996~2016)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특히, 최근 급격한 확진자 급증에 따라 초고강도의 방역조치가 재시행됨에 따라 소비심리 및 소비활동의 위축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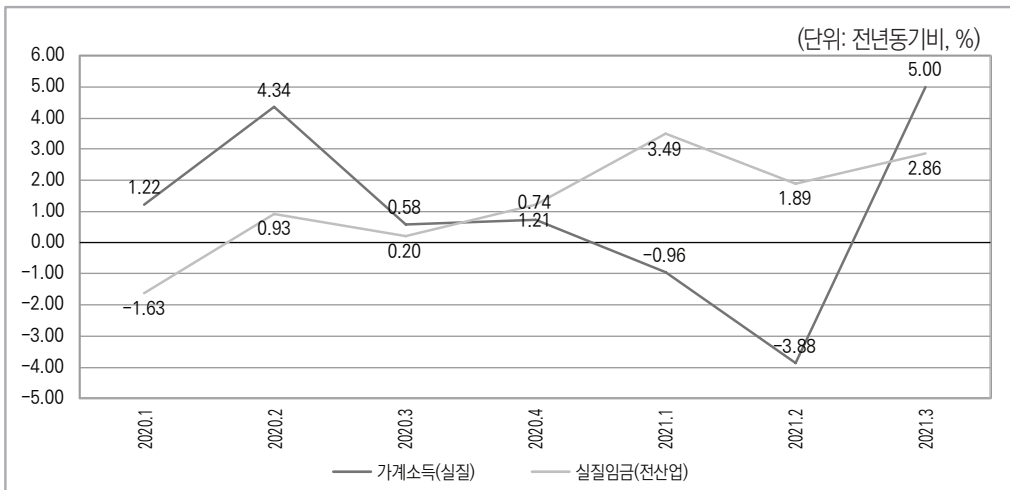
〈그림 II-3〉 소비자심리지수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2022년 민간소비는 고용여건의 일부 개선에도 불구하고 자영업 부진에 따른 소득 기반 약화, 급격히 늘어난 가계신용에 대한 원리금 부담 상승 등이 소비를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확진자 급증에 대한 수습 여부 및 일상으로의 회복속도에 따라 민간소비 회복세 지속여부가 결정될 전망
  - 소득기반 약화: 임금상승률 정체, 자영업자 소득 감소
  - 부채증가로 인한 원리금상환 부담 증가: '21년 3/4분기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50조 원 돌파한 가운데 금리인상까지 이뤄지며 매분기 이자비용만 50조 원을 초과하며 소비여력 감소
  - 고강도 방역조치 재시행으로 위드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이 무산되고 물리적 소비활동에 제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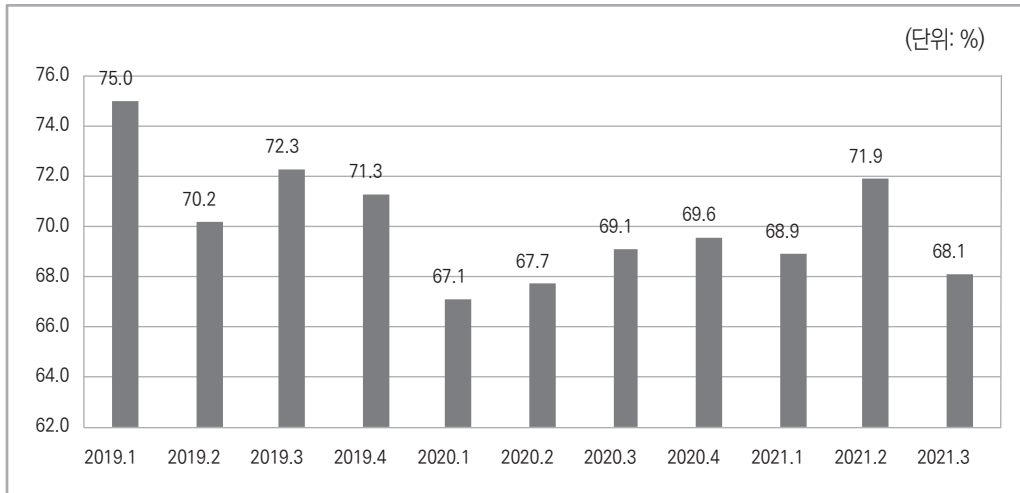
〈그림 II-4〉 최근 가계 소득 현황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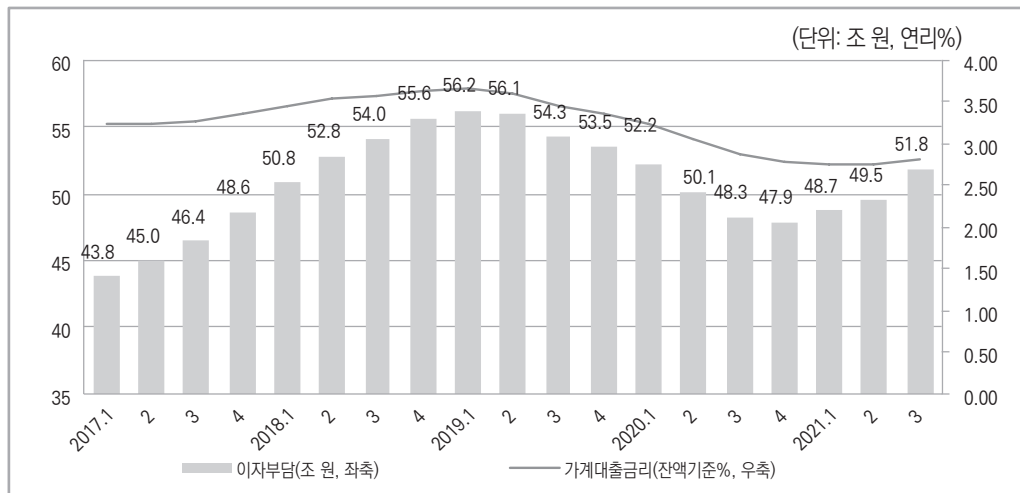


〈그림 II-5〉 평균소비성향



자료: 한국은행

〈그림 II-6〉 가계대출 이자부담 추이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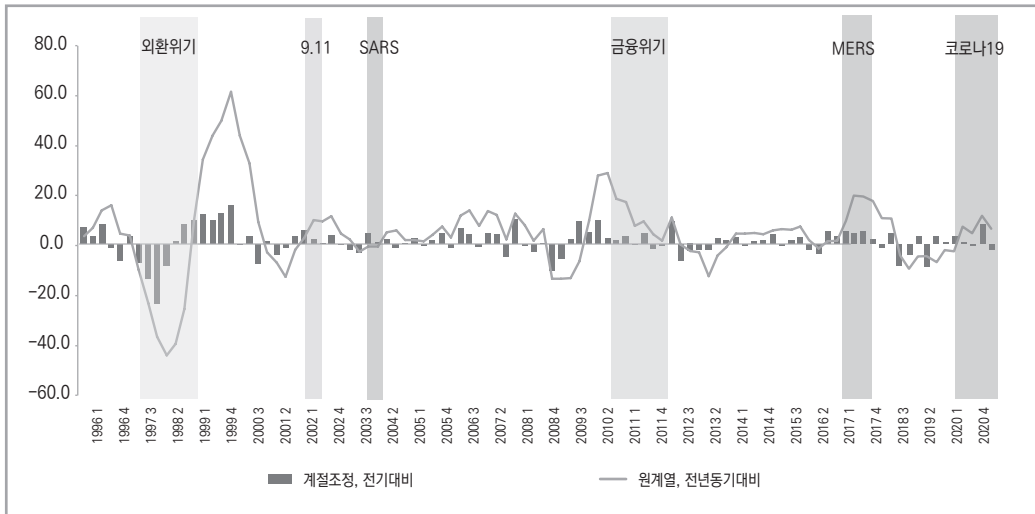
□ 설비투자: 2021년 9.0%(상반12.6, 하반5.5) → 2022년 2.7%(상반1.5, 하반3.9)

○ 2021년 설비투자는 반도체 등 IT부문에 대한 공격적 투자와 신성장·친환경 부문 투자증가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을 기록할 전망

▶ 주요 위기별 설비투자 증감률

- ✓ 외환위기: -38.3%('98.1Q~'98.4Q, 평균)
- ✓ 사스: 1.8%('03.2Q)
- ✓ 금융위기: -14.4%('08.4Q~'09.1Q, 평균)
- ✓ 메르스: 4.5%('14.2Q)
- ✓ 코로나19: 6.8(2020년)

〈그림 II-7〉 역사적 설비투자 증감률(1996~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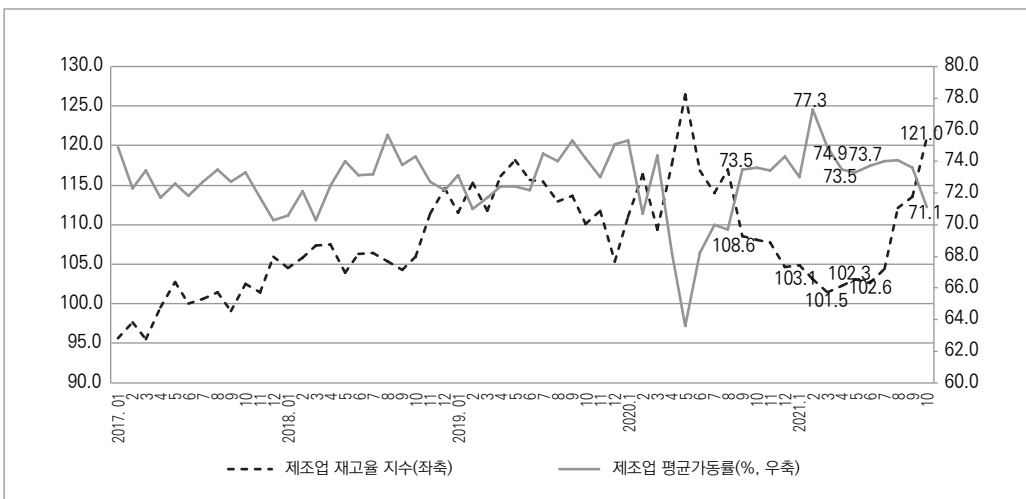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2022년 설비투자는 주요국의 경기회복 지속에 따라 양호한 수준의 교역량 증가가 기업의 투자심리를 제고시키고, 제조업 생산증가로 이어지면서 견조한 성장세를 나타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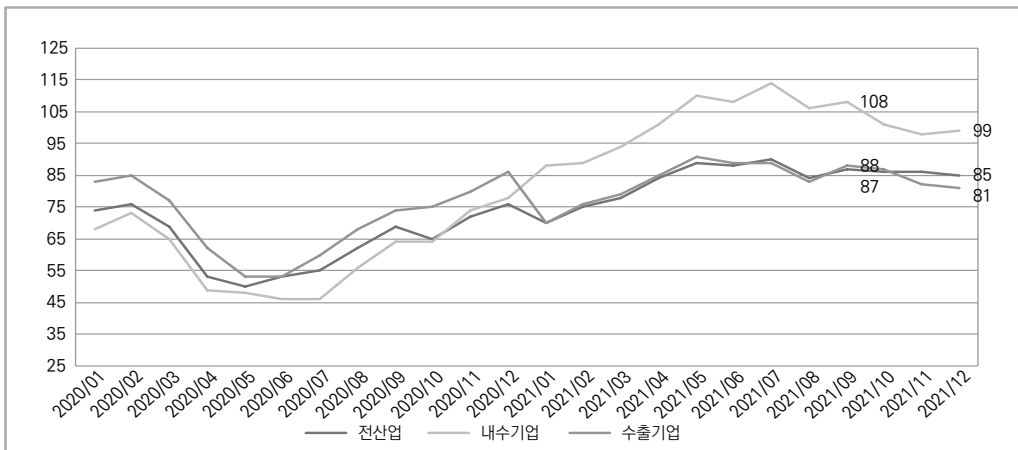
- 특히, 파운드리 분야에 대한 반도체 부분의 공격적 투자와 바이오헬스, 배터리 등 신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확대가 동시에 이뤄지며 설비투자의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그림 II-8〉 제조업 설비투자압력



자료: 통계청

〈그림 II-9〉 업황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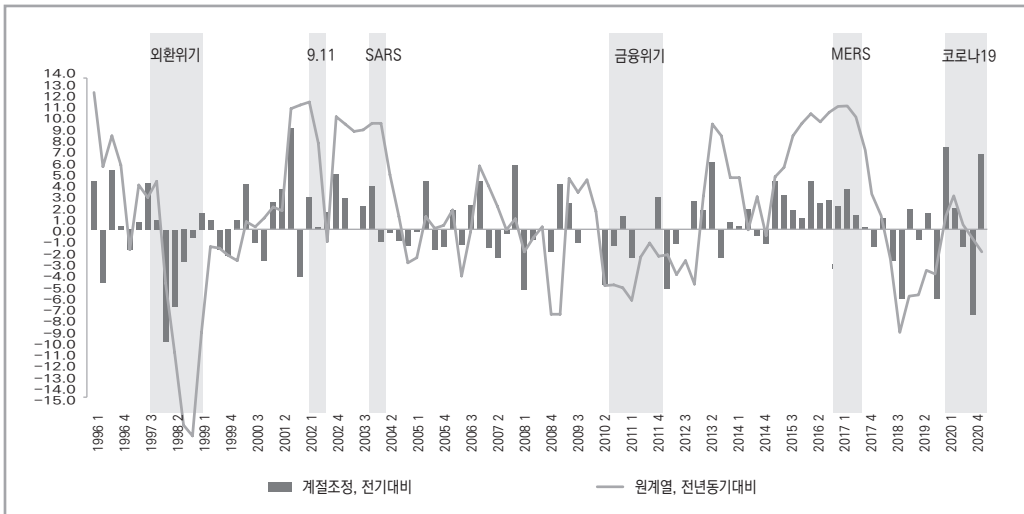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건설투자 : 2021년 -0.5%(상반-1.5, 하반0.5) → 2022년 2.5% (상반2.3, 하반2.7)
- 2021년 건설투자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의 영향 및 설비투자 증가에 따른 공업용 건물 건설 증가에 힘입어 부진이 다소 완화될 전망

▶ 주요 위기별 건설투자 증감률

- ✓ 외환위기: -12.5%('98.1Q~'98.4Q, 평균)
- ✓ 사스: 8.4%('03.2Q)
- ✓ 금융위기: -7.3%('08.4Q~'09.1Q, 평균)
- ✓ 메르스: 0.0%('14.2Q)
- ✓ 코로나19: -0.1(2020년)

〈그림 II-10〉 역사적 건설투자 증감률(1996~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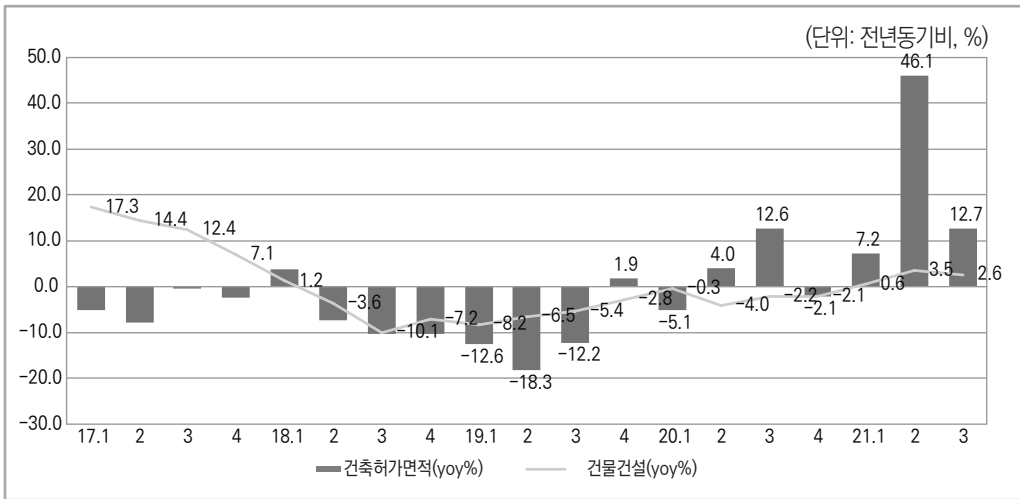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2022년 건설투자는 공공재개발 및 3기 신도시 등 정부주도의 건물건설이 증가하고, 현재 진행중인 토목부문의 증가세에 정부의 SOC 확대 계획에 따른 철도 및 도로건설이 본격화되면서 수년간 지속되어 온 마이너스(-) 성장에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

- 주거용 건물은 정부의 공급대책에 따른 공공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착공물량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
- 비주거용 건물은 상업용 건물건설 증가를 중심으로 개선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
- 다만, 향후 방역조치 강화로 건설현장에서 차질이 나타나게 될 가능성 상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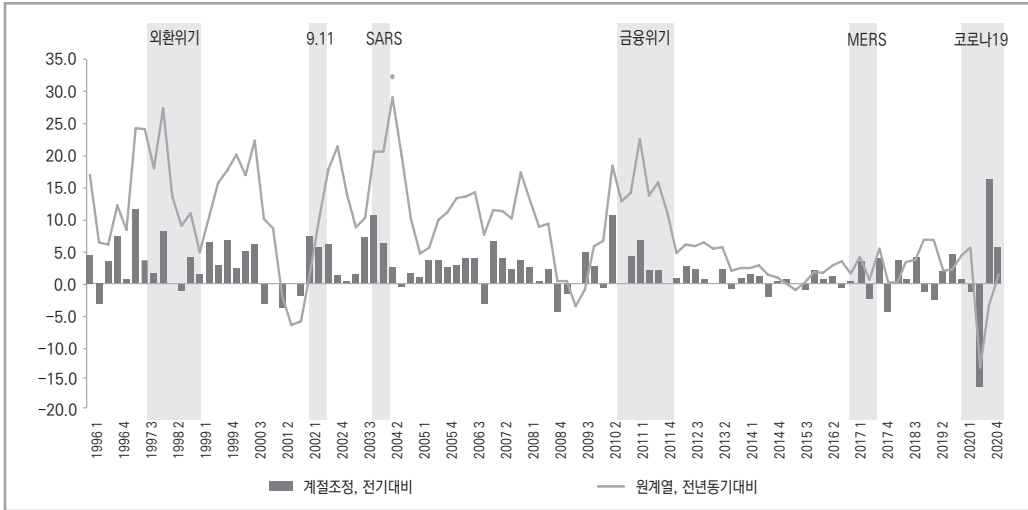
〈그림 II-11〉 건축허가 연면적 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 실질수출: 2021년 24.2%(상반26.0, 하반22.3) → 2022년 2.5%(상반2.3, 하반2.7)
- 2021년 수출은 미·중 등 주요국의 예상을 웃도는 빠른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확대로 글로벌 교역량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 제품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며 전체적인 경기회복을 견인
  - ▶ 주요 위기별 수출 증감률
    - ✓ 외환위기: 15.2%('98.1Q~'98.4Q, 평균)
    - ✓ 사스: 8.8%('03.2Q)
    - ✓ 금융위기: -0.9%('08.4Q~'09.3Q, 평균)
    - ✓ 메르스: 2.8%('14.2Q)
    - ✓ 코로나19: -2.4(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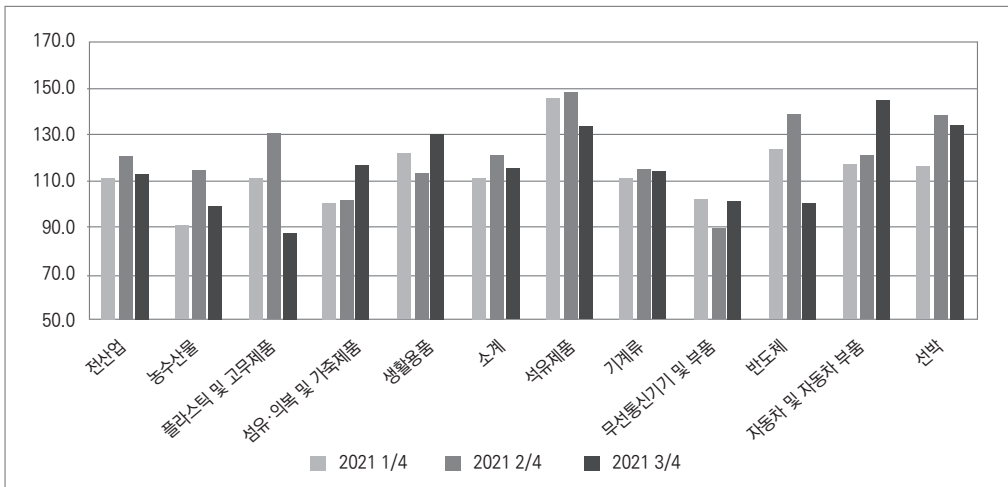
〈그림 II-12〉 역사적 수출 증감률(1996~2016)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D램 가격이 소폭 하락하였으나 스마트폰용 반도체에 대한 초과수요 상황이 전개되면서 유리한 교역조건이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
  - 반도체 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일반기계 부문이 주요국 경기회복 및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두자릿수의 상승세를 지속중인 가운데, 신성장 품목인 바이오헬스, 전기차 등의 수출도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며 수출이 기저효과를 뛰어넘어 호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
- 2022년 수출은 글로벌 경기회복세 지속에 힘입어 반도체 호황을 중심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게 될 것으로 보이나, 2021년 높은 실적에 대한 기저효과와 중국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성장폭은 다소 둔화하게 될 전망

〈그림 II-13〉 품목별 수출경기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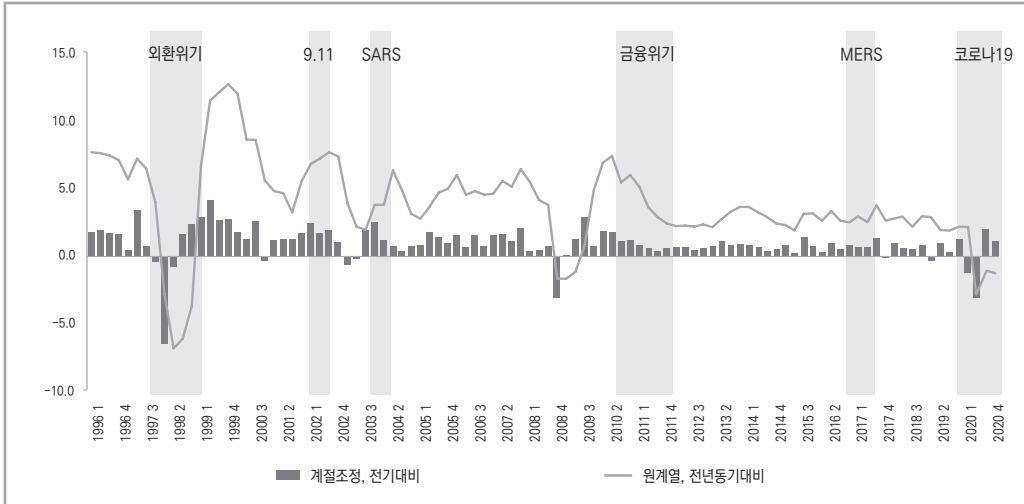
□ GDP 성장률: 2021년 3.9%(상반4.0, 하반3.8) → 2022년 2.9%(상반2.8, 하반3.0)

○ 2021년 우리경제는 세계경제의 빠른 회복에 따른 수출호조가 경제부문 전반을 견인하는 가운데 지난해 역성장에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되면서 3.9%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주요 위기별 GDP 증감률

- ✓ 외환위기: -5.1%('98.1Q~'98.4Q, 평균)
- ✓ 사스: 2.3%('03.2Q)
- ✓ 금융위기: -1.5%('08.4Q~'09.2Q, 평균)
- ✓ 메르스: 3.4%('14.2Q)
- ✓ 코로나19: -1.0(2020년)

〈그림 II-14〉 역사적 GDP 증감률(1996~2016)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다만, 재시행된 고강도 방역조치로 인한 생산차질 및 소비위축 가능성에 대한 대처여부가 2021년 성장을 매듭짓는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
- 2022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원활한 수습 여부가 2022년도 상반기의 경기흐름의 방향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으로 남아 있는 가운데, 기저효과의 소멸, 정책지원 여력 감소, 수출성장세 약화 등 성장의 하방요인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성장세는 약화될 전망

★ 통화정책

- 지난 8월과 11월에 두차례 금리인상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진 상황
- 높은 물가상승세와美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따라 2022년중 한두차례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이뤄질 가능성
- 급격히 늘어난 가계부채, 기업부채가 금리인상 현실화로 인해 금융시장 내에 신용경색 및 신용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고, 급격한 금리인상이 경기회복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상화 속도에 신중을 기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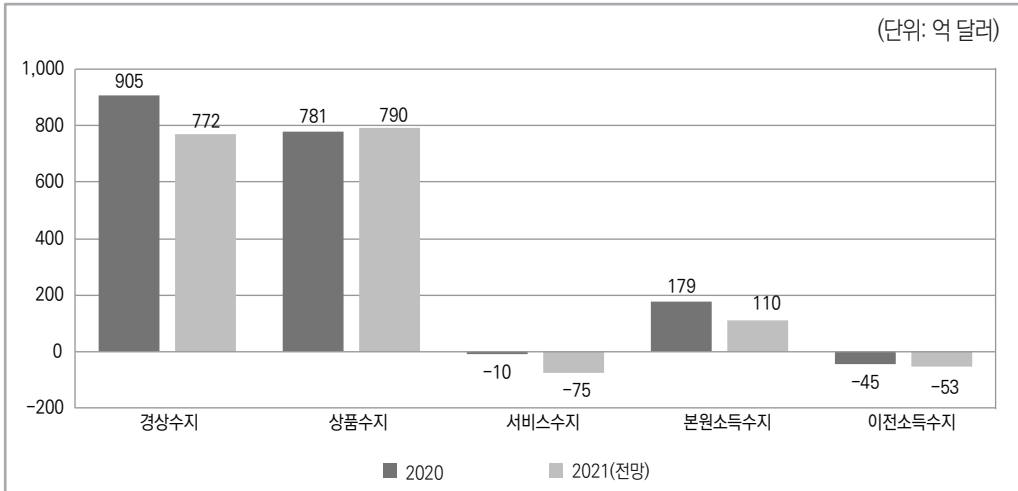
★ 재정정책

- 2022년도 예산은 2021년도에 비해 48.6조 원 증액된 604.4조 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총수입은 548.8조 원에 불과해 이미 1,000조 원을 돌파한 국가채무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
  -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은 자명하지만 무분별한 이전지출 남발보다는 기업 및 가계에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펼쳐 나가는 한편, 재정지출 효율화를 면밀히 진행하여 재정건전성 확보에 대한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필요
- 다음과 같은 불안요인들의 향후 성장률 전망에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
- 최근 급증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대한 원활한 대처 여부가 2022년 상반기 성장경로의 향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
  - 감염병 확산세 심화에 따른 경기급랭 및 추가급락 가능성
  -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세 및 글로벌 공급차질 장기화
  - 중국경제의 경기회복세 둔화에 따른 세계 교역량 위축 가능성

(2) 경상수지

- 경상수지: 2021년 906억 달러 흑자(상반443, 하반462) → 2022년 772억 달러 흑자(상반377, 하반395)
- 2021년 경상수지는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호조 및 서비스수지 개선에 힘입어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겠으나, 2022년에는 수출증가세가 점차 약화되고 수입수요는 늘게 되면서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감소하게 될 전망
- 특히, 내국인의 해외여행이 점진적으로 재개될 경우, 서비스수지는 2021년에 비해 2022년 적자폭이 크게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

〈그림 II-15〉 경상수지 항목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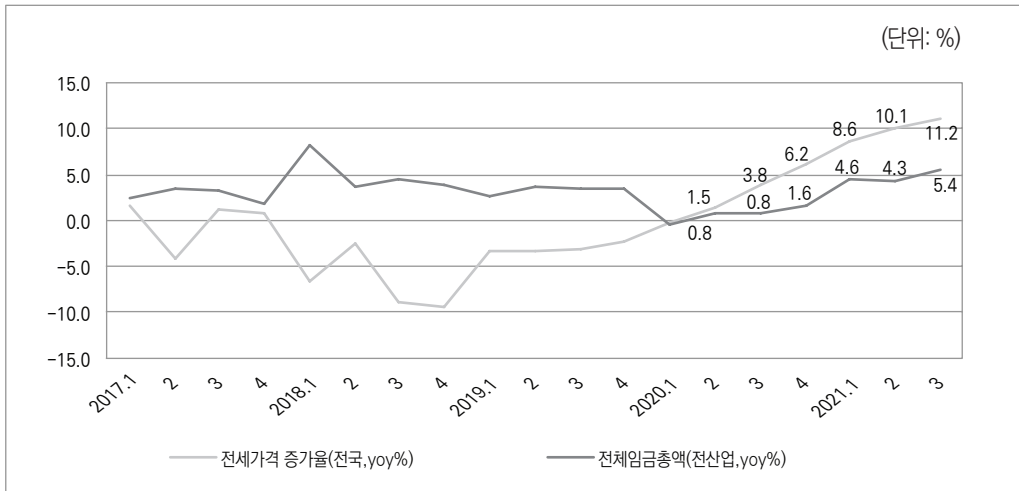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3) 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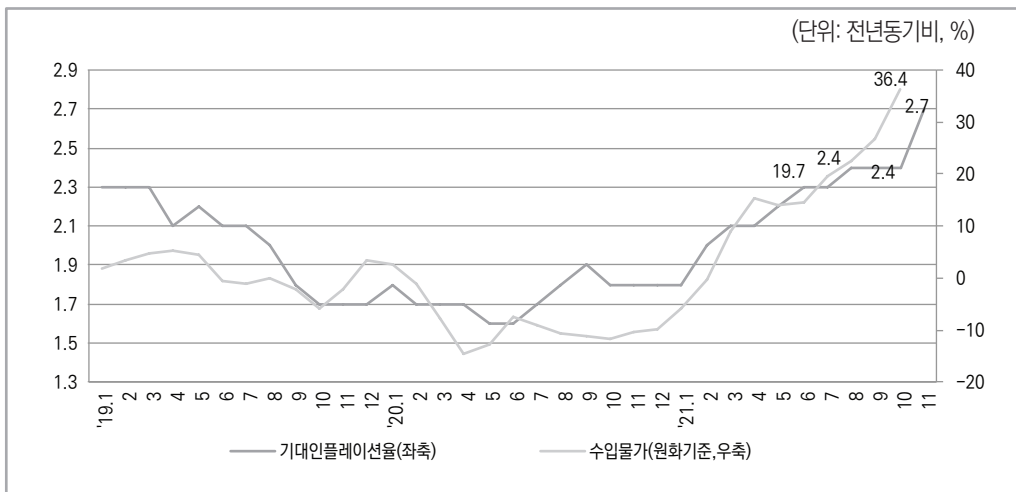
□ 소비자물가: 2021년 2.4%(상반1.8, 하반2.9) → 2022년 1.9%(상반2.1, 하반1.7)

- 2021년 물가는 국내경기의 회복세에 따른 수요확대가 물가상승세를 지지하는 가운데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 공급측 요인이 물가상승을 견인하며 2% 중반 수준에 근접하게 될 전망
- 2022년 물가는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확대 흐름에도 불구하고 최근 물가의 급상승을 주도해 왔던 원자재 가격이 점진적으로 안정을 되찾게 되면서 물가상승세는 낮아지게 될 전망
  - 최근 재시행된 고강도 방역조치가 물가상승세 확대를 제한하게 될 가능성
  -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고령화, 급증한 가계부채 등 소비부진의 구조적 요인들 역시 물가상승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그림 II-16〉 전세가격, 임금총액



〈그림 II-17〉 수입물가, 기대인플레이션율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 (4) 원/달러 환율

- 원/달러 환율: 2021년 1,145원/달러 → 2022년 1,170원/달러
- 2022년 원달러 환율은美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본격화되고 미국의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는 반면, 한국의 성장속도는 상대적으로 둔화하게 됨에 따라 2021년 대비 소폭 상승하게 될 전망
- 다만, 현재까지 양호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한국의 대외건전성 및 외환보유고, 美 재정적자의 과다한 누적에 대한 우려는 원화 대비 달러화 강세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동시에 작용

〈그림 II-18〉 원/달러, 달러 인덱스



자료: 한국은행, 국제금융센터

〈표 II-5〉 2021~2022 국내경제전망

(단위: 전년동기대비(%), 억 달러(국제수지부문))

	2020년	2021년			2022년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GDP	-0.9	4.0	3.8	3.9	2.8	3.0	2.9
민간소비	-5.0	2.4	4.2	3.3	2.9	3.3	3.1
건설투자	-0.4	-1.5	0.5	-0.5	2.3	2.7	2.5
설비투자	7.1	12.6	5.5	9.0	1.5	3.9	2.7
지식생산물투자	4.0	4.0	3.9	4.0	3.9	3.5	3.7
수 출	-5.5	26.0	22.3	24.2	2.3	2.7	2.5
수 입	-7.1	24.2	33.4	28.8	3.3	3.0	3.2
소비자물가	0.5	1.8	2.9	2.4	2.1	1.7	1.9
경상수지(억 달러)	753	443	462	905	377	395	772
상품수지(억 달러)	819	382	399	781	386	404	790
서비스수지(억 달러)	-161	-29	19	-10	-29	-46	-75
실업률(%)	4.0	4.5	3.0	3.7	3.9	3.5	3.7



# keri 경제동향과 전망

1판 1쇄 인쇄 / 2021년 12월 28일

1판 1쇄 발행 / 2021년 12월 31일

발행처 /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 권태신

편집인 / 권태신

등록번호/제1982-000003호

(07320)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 TOWER 46층

전화(대표) 3771-0001

<http://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21

